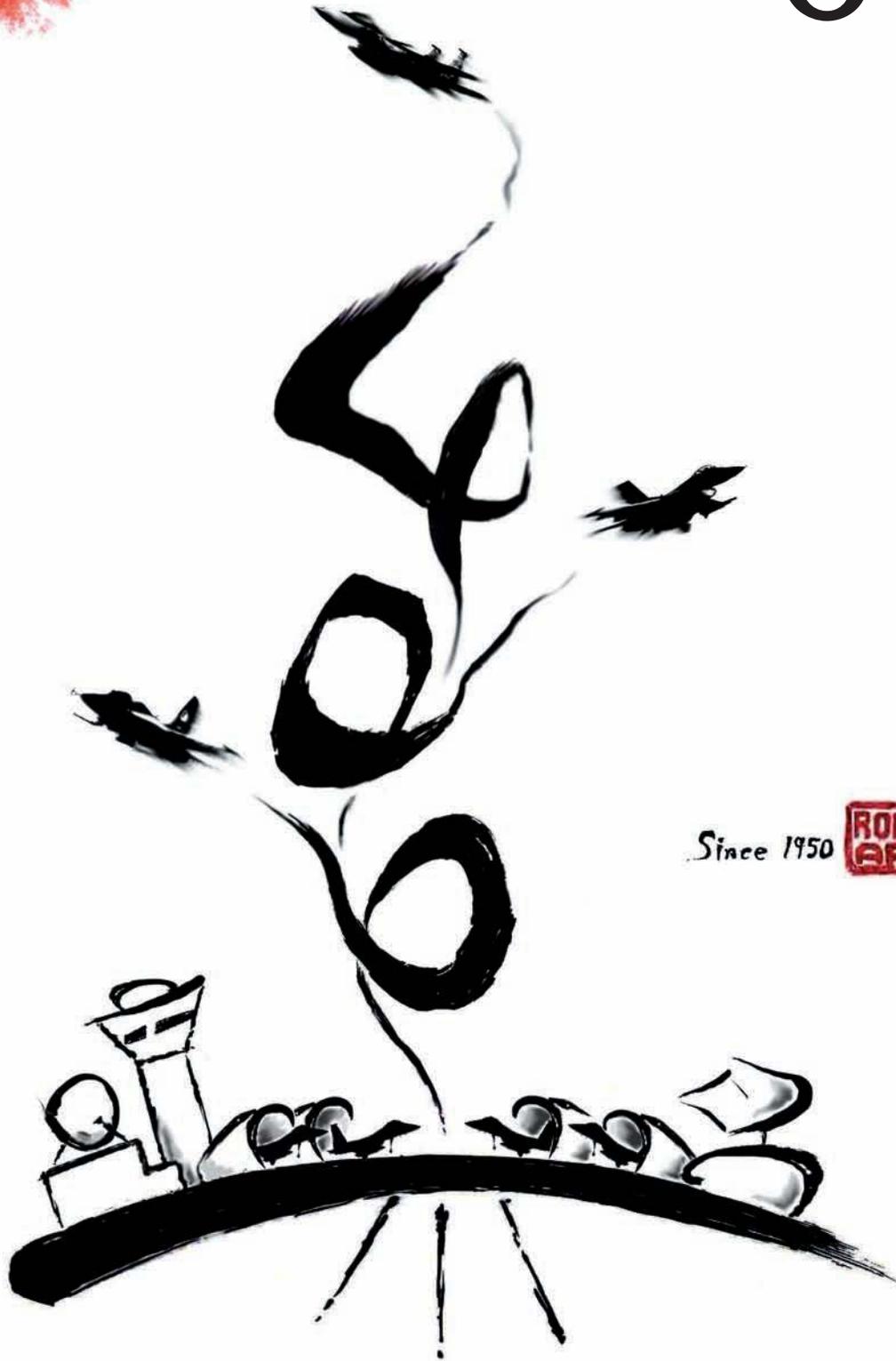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넓은 힘

공군



Since 1950 

“공군의 숨결, 「공군」지 400호”



완연한 가을 정취가 행복을 더하는 절기에 「공군」지 400호를 펴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공군을 성원해 주시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공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공을 등지 삼아 막중한 조국영공수호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전쟁 직전에 창간호를 선보인 「공군」지는 격변기를 거치며 공군순보, 코메트, 에어맨스 위클리, 공군 위클리, 계간 공군, 주간 공군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발행되다가 1998년 9월에 지금의 월간 「공군」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군」지에는 수많은 공군인들의 숨결과 열정,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정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국과 공군의 앞날을 위한 숭한 고민과 성찰뿐만 아니라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목숨마저 바친 선배 전우들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군」지는 단순한 월간지가 아니라 공군의 역사였고, 공군인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만큼 이번 400호 발행을 계기로 「공군」지는 더욱 빠르고 힘찬 걸음으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면서 공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소통의 미디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400호 발행이라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공군」지를 애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더 많은 희망 메시지를 담아 지속적으로 선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으며, 지금까지 「공군」지를 함께 만들어오고 이야기꽃을 피워 온 수많은 편집인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군」지 발행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관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기쁜 날 행복의 크기만큼 독자 여러분들에게 밝고 희망찬 일상들이 항상 함께하길 공군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박종현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박종현

바둑을 잘 두기 위한 최선의 공부는 복기(復棋)입니다. 바둑이 끝난 뒤,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진 자는 진 자대로 자신의 실수를 되짚어 봄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기의 목적이지요. 「공군」지 400호는 여정의 한가운데일 뿐 분명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고 복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군」지는 역동적인 탈피와 변모의 과정을 거듭하며 오늘의 위상에 이르렀습니다. 공군장병과 예비역을 넘어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독자층을 크게 넓혔고 분에 넘치는 애정과 성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편집팀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공군」지는 독자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수용자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미디어는 생명력이 없다.’는 엄연한 진실 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공군」지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독자들의 격려만 삼키고 비판은 뱉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려 합니다. 400호를 맞아 냉철한 복기와 굳은 다짐으로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공군」지를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령 최영훈 |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문화홍보과장 보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공군」지 400호 특집을 발간해야 된다는 사실은 연초부터 크나큰 부담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아이템들을 상상하고 그려봤지만 지금의 인력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을 편집실 장교들과 함께 기획하고 취재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400호를 독자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군내 최고 월간지로 자부하는 「공군」지의 위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도 하고 채근도 하고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우리 편집실을 한없이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군」지는 앞으로도 공군 내·외에서 늘 화제를 만드는 책, 독자들이 다음 호를 손꼽아 기다리는 매거진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비상하는 「공군」지 파이팅!

중령 손경수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장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위관 시절의 간절했던 바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도 「공군」지 편집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지... 스스로 기획하고 취재하고 편집해서 공군의 대표적인 월간지를 꼬박꼬박 발간하는 그 일이 그때는 참 멋있어 보였었죠. 평범한 군인으로서 만나보기 힘든 명사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러웠었습니다.

지난날의 저처럼, 지금의 제 위치와 역할을 부러워하는 누군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런 상상으로 마감의 무게감을 ‘근거 없는 뿌듯함’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군」지 포에버~

소령 조세영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전임자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군」이란 제호 앞에 ‘월간’이라는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 건 결코 네 능력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일 것”이라고. 요즘 들어 이 말이 왜 이리 뼈저리게 느껴지는지요. 이 지면을 빌려, 그동안 월간 「공군」을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위 류재영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Congratulations! Vol. 40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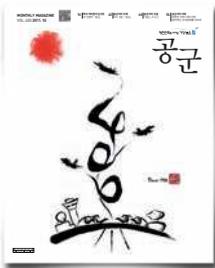


08 월간「공군」400호 축하 메시지



14 독자 여러분의 손으로 월간「공군」의 표지공모 이야기
내 인생의「공군」

COVER STORY



감사하다는 말과 고맙다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월간「공군」이 400호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표지제작(앞) 황필교 | 제11전투비행단 소방중대
표지제작(뒤) 강은혜 | 한양대 산업디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 22 포토프레임@AF
- 24 AIR FORCE MONTHLY
- 28 특집 양케이트 - 400명에게 물었다! 공군병사들의 인식MAP

- 32 「공군」지의 어제 월간 「공군」,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한 61년간의 여정
역대 편집담당에게 물어본다
다시 읽는 「공군」
- 46 「공군」지의 오늘 「공군」 A to Z
- 50 「공군」지의 미래 미래를 그리는 대화
따뜻한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위하여

MONTHLY MAGAZINE
VOL. 400. 2011. 10

발행일자 2011년 9월 30일(통권 제400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8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1 월간 「공군」은 **내몸**이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공군이 있기에 우리가 맑껏 구름 위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 밑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기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내 몸 같은 일심동체라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공군 출신이라 아무래도 타군 잡지보다 「공군」지가 친숙합니다. 내용들도 다양하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아 참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나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군 파이팅! - 경북 경주시, 박기호

02 월간 「공군」은 **프로야구**다. 전 국민이 프로야구 경기에 열광하고 기쁨을 느끼듯이 전 장병이 「공군」지를 읽고 즐거움을 찾는다는 데서 프로야구라 표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Health Diary〉의 '혹서기, 열로부터의 건강관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계급,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겨내기 힘든 더위! 무조건적으로 에어컨, 선풍기를 찾게 되는 제게 훨씬 간단하면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내 몸에 대한 보호법을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 경기 성남시, 안대순

03 월간 「공군」은 **이자**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자처럼 매월 머리에 공군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쌓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항공구조사들의 뜨거운 여름, Anytime, Anywhere' 라는 글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보다는 조종사들의 안전과 목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희생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대구 동구, 심재훈

04 월간 「공군」은 **지식**이다. 그동안 공군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모두 알려주는 친절한 지식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은 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을 알게 된 지도 어느덧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군을 알고 싶으면 공군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접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인 여러분의 미소에 정이 새록새록 생기고 기쁜 소식에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이제 저도 공군의 한가족이 된 것 같지 않나요? - 전남 여수시, 박현아

05 월간 「공군」은 **금고**이다. 월간 「공군」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공군에 관한 많은 보물 같은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넣는 '금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의 '항공구조사들의 뜨거운 여름, Anytime, Anywhere' 라는 글을 재밌게 봤습니다. 구조사들이 조종사를 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송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 관한 좋은 기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주 노형동, 이민수

06 월간 「공군」은 **도전**이다. 글을 읽으면서 내게 새로운 도전과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도전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 〈기획특집〉을 보면서 항공구조사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정신은 바로 이런 강인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호마다, 풍성한 정보, 읽을거리 감사합니다. 늘 수고해 주세요! - 대전 서구, 조은정



CONG

RATULA

TIONS

VOL.

400



축하메시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군」지 지령 400호를 전 국군장병과 함께 축하합니다.

「공군」지는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국군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굳건히 지켜 온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군」지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그 속에 장병들의 땀과 열정을 진솔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장 한장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공군 장병들의 영공수호를 향한 의지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지가 우리 공군 전우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국민의 마음속에 투영시킬 수 있는 든든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 국군장병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에 힘찬 응원을 보내며, 「공군」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원유철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주역' 공군의 '눈'과 '귀'와 '입'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월간 「공군」의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간 「공군」은 그동안 공군의 미래를 비춰주는 나침반이자 등대였고, 공군 장병이 전승(戰勝)의 핵심군으로서 자부심과 전우애를 통해 혼연일체가 되게 하는 윤활유였으며, 국민과 공군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와 애정을 돈독하게 다지게 해주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저 역시 공군가족으로서 앞으로도 월간 「공군」이 대한민국 '국방'과 공군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다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동안 기획·취재·편집을 위해 땀 흘리고 노심초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언론학회장 윤영철 교수



월간 「공군」 400호 발간을 언론학계 모든 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간 「공군」은 지난 1950년 6월에 창간한 이래, 대한민국 공군과 국민의 '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에게는 신뢰와 사랑을, 공군인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이 '영공방위 임무완수'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의 촉매제가 됨은 물론, 디지털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며 공군과 국민, 나아가 세계인과 소통하는 미디어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4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월간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 이중근



친애하는 공군 장병과 예비역 여러분!

월간 「공군」 400호 발행을 공군인터넷전우회 전 회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여 년 전에 처음 발행된 월간 「공군」이 대망의 400호를 발행하게 되는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월간 「공군」 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많은 공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 후 오랜 시간 동안 공군인의 훌륭한 벗이 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항공우주시대를 주관하게 될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의 멋진 “공군”이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월간 「공군」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장병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육군지 담당 중령 이상금



감성과 감동이 가득 녹아 있는 「공군」지 400호 발간 기념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늘 기다려지고 친근감 있는 「공군」지를 기대합니다! 알라뷰 「공군」지!!

한국사보협회 회장 김흥기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의사소통입니다.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가꾸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보를 비롯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관련 매체의 창의성은 훌륭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는 구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알아보려면 그 조직에서 나오는 사보나 기관지를 비롯한 여러 조직 매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보로 대표되는 여러 PR매체는 조직문화를 담아내는 그릇, 조직문화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그 조직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사보를 비롯한 조직의 정기간행물입니다.

조직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지가 60여 년의 찬란한 역사와 고귀한 전통을 자랑하며, 지령 4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공군」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해군지 담당 서기관 고영택



「공군」지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창간 이후 공군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정신전력강화에 큰 힘이 되어 온 「공군」지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공군의 발전과 함께 온 「공군」지는, 항상 장병들의 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또 문학적 욕구를 뿜어내는 가장 편한 휴식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월간 「공군」지의 400호 발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공군 장병들의 교양 잡지로서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방부 가족지 「한우리」 담당 주무관 성보영

월간 「공군」 4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 가족지 「한우리」는 올해 3년차로 11호를 발간했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잡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들과 짙은 구성을 보면, 「공군」지를 만드시는 분의 열정과 노력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내용으로 공군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공군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월간 「공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배우 유준상

월간 「공군」 400호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공군 여러분 힘내십시오.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파이팅!



영화배우 정경호

「공군」지 400호 발간을 하게 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촬영을 계기로 「공군」지를 접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잡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재미있는 잡지더라고요. 그런 잡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병영생활 중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장병 여러분들, 지금은 공군 생활하는 것이 지켜워서 그 잡지조차도 지켜올 수 있겠지만 저는 육군을 나와서 그런지 그 잡지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잡지의 퀄리티가 높았던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잡지 만들어 주십시오. 또 민간인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4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영화배우 신세경

이번에 '비상'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군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멋진 월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영화촬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잘 얻고 갑니다. 400호란 사실을 듣고 놀랐는데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는 만큼 더욱 좋은 소식과 정보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공군!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영화배우 이하나

월간 「공군」,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벌써 400호를 맞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값지고 유서 깊은 「공군」지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수 박현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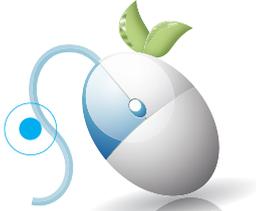
앨범을 발표하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면, 결코 탄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공군」지는 올해 61주년이 되고, 400호가 되었으니 그 의미가 남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간 「공군」 4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군뿐만이 아닌,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잡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유준상 씨, 정경호 씨, 신세경 씨, 이하나 씨, 박현빈 씨의 축하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손으로

월간 공군의 표지공모 이야기



400호를 맞아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독자들의 손으로 월간 「공군」의 표지를 직접 꾸며보자는 것이었지요. 이왕이면 큰맘 먹고 준비한 이벤트!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월간 「공군」의 표지공모에 입상하신 분들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수상자들에게 직접 듣는 표지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최우수작(병장 황필교, 11비 소방중대)

여러분들은 '공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우렁찬 폭음소리와 전투기, 그리고 빨간마후라를 두른 파일럿이 생각날 것입니다. 저 또한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말고 나머지 공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군에 입대한 후, 공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이면서도 세분화된 특기 교육을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며 그런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공군인 모두가 하늘에서 전투기를 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투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 오늘도 많은 공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전투기에 이상이 있는데 고칠 정비사가 없다면, 전투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줄 검사반이 없다면, 항공기 기름이 없는데 주유해 줄 사람이 없다면, 안전한 비행과 무선을 책임지는 관제탑이 없다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지상구조반이 없다면, 튼튼하고 안전한 기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밥을 제때 먹지 못한다면, 공군은 제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비단 비행단뿐만이 아니라, 정예신병을 육성하는 교육사, 군수물품의 핵심 군수사, 깊은 산속에서 외로이 하늘을 경계하는 방공포대와 사이트 등, 저도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늘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공군인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군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번 표지에는 전투기와 공군의 상징물들을 통해 하늘과 땅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수작(강은혜, 한양대 산업디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중앙에 월간 「공군」 400호를 축하하는 타이포를, 배경에 공군과 관련된 용어들을 희미하게 배치했습니다. 배경을 이루는 단어는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기종, 특기, 부대명입니다. 멀리서 독자들이 「공군」지를 보더라도 400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수작(상병 강성훈, 중전소 개발관리실)
 숫자 400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표지판에 400km라는 숫자가 적힌 것을 보게 됐고 이에 영감을 얻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시안은 어느 한 공군 장병이 400호라는 표지판을 보며 외딴길을 걷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표지판을 생략, 아스팔트 바닥에 400호를 넣는 것으로 시안을 변경했습니다.
 공군 장병이 걸어가는 길을 외딴길로 표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보다는 무관심이 더 익숙한 군인들의 쓸쓸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뚝뚝 땀 흘린 공군 장병들의 패기 있는 모습 역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공군 장병들이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월간 「공군」이 함께해 주기를 바라며 표지작업을 하였습니다.



우수작(이난영, 서울시 강남구)
 월간 「공군」과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 F-15K의 비상하는 모습을 연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 우주군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군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월간 「공군」 표지와 다르게 배경을 검은색으로 사용, 시각적인 주목도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손으로

내 인생의 공군

400호를 맞아 편집실에서는 독자 분들에게 월간 「공군」에 관한 사연을 공모했습니다. 평소 업무로 독자 분들의 생각을 듣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월간 「공군」에 관한 독자 분들의 사연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맷게도 많은 독자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방부에 계신 장교부터 현역 병사, 공군에 남자친구를 보낸 고무신과 공군을 꿈꿨던 소녀까지. 편집실로서는 정말이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독자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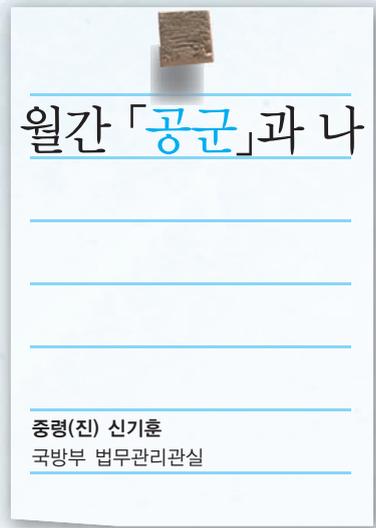


3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파리가 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지를 몸소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파리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브랜드 Power는 파리지역의 자부심과 역사 유물에 대한 가치 보존의식, 그리고 예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프랑스인의 높은 문화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파리가 그러한 문화와 예술의 Herb임을 세계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프랑스만의 견고한 인프라였다. 다양한 인프라 중 내게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프랑스를 알리는 잡지이다. 내가 접한 잡지는 프랑스의 유명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이다. 이 잡지는 프랑스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프랑스인 가이드가 되어 주기도 하고 오르셰 미술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의 수많은 예술작품에 대한 전문 큐레이터가 되어 주기도 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내가 바로 프랑스 사람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며 프랑스를 오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권위를 향한 부러움의 대상"이다.

월간 「공군」은 내게 그러한 의미의 잡지이다. 특히, 민간대학 위탁교육을 경험한 내게 월간 「공군」은 공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나 스스로 느끼며 안내해 주는 소중한 나의 채널이 되어 주었다.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당시, 같이 고시공부를 하던 스터디 멤버들 사이에서 내가 스스로 공군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며 내가 공군인이라는 첫 이미지를 산뜻하게 형성해 준 나만의 채널은 바로 법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월간 「공군」이었다. 월간 「공군」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파리지역의 관계처럼 내 자신에게는 내가 바로 공군인이라는 자부심 그 자체이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프랑스를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과의 관계처럼 다른 스터디 멤버들에게 공군의 세련되고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특히나 고시 스터디 멤버들과의 점심식사 후 차 한잔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에, 같이 월간 「공군」을 살펴보며 고시공부를 같이 하던 형이 했던 말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다. "공군은 참 세련된 군이야. 잡지 하나만 봐도 굉장하잖아." 당시 스터디 멤버가 8명이었는데 공군 대위였던 나의 첫 이미지를 세련되고 깔끔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월간 「공군」이다. 공군을 알리는 잡지의 이미지와 공군의 이미지가 함수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공군인 스스로 그 권위를 지키고 더 높이기 위해 자부심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 2012년 이제는 시간이 흘러 국

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첫 배속과 동시에 바쁜 일상에 파묻혀 정신없이 보내고 있던 4월의 어느 날, 점심식사 후 내 책상 위에 있던 월간 「공군」을 발견하고 난 바쁜 일상의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유일한 공군장교인 나를 위해 주무관님이 법무관리관실로 배송된 월간 「공군」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던 것이다. 나는 가수 '비'가 조종복에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F-15K 앞에서 찍은 사진을 표지로 한 월간 「공군」 4월호를 옆자리의 육군 법무관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역시 공군은 잡지하나만 봐도 세련미가 장난 아니지?" 옆자리 후배는 "정말 멋있네요. 표지며 내용이며 군대 잡지같지 않아요. 부럽네요. 공군에 이런 잡지가 있다는 것이...". 2000년에 느꼈던 그때의 감정이 다시 회상되면서 흐뭇한 기분과 고시공부시절의 애절함이 교차되었다.

법무관리관실은 국회 법사위에 대한 국방부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회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법사위 국회위원님들의 비서관과 보좌관들과의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난 그때마다 매월 배송되는 월간 「공군」을 들고 간다. 자칫 어색할 수 있는 첫 대면에서 월간 「공군」을 건네며 "잡지가 산뜻하죠! 시간 될 때 한번 읽어 보세요."라는 말 한 마디를 건네면 주는 사람의 배려와 받는 사람의 고마움이 합쳐져 마치 술 한잔 후의 편안함이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또한 국방부에 전문기관 실무수습을 오는 사법연수원생들과 각 대학의 로스쿨생들과의 첫 만남에서도 난 월간 「공군」을 들고 가 "잡지 세련미가 장난 아니죠? 쉬는 시간에 돌려 보세요."라는 말을 건네며 첫 만남을 시작했다. 내가 굳이 공군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공군은 세련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을 건네지 않아도 월간 「공군」이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채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실무수습생들의 부대견학 신청은 모두 공군 부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청주의 29전대를 방문하여 F-16 등 한국 공군의 최신에 전투기를 보여 주며 공군을 홍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월간 「공군」이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프랑스 사람에게 자부심의 상징이며 프랑스를 오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권위를 향한 부러움의 대상이듯, 월간 「공군」은 공군인에게는 공군인의 정신을 채워주는 화수분이며 외부인에게는 공군을 알고 싶게 유혹하는 매력적인 향기이다. 난 이런 월간 「공군」을 나 스스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공군인이다.



은사님이 남겨 주신 하얀 은사(銀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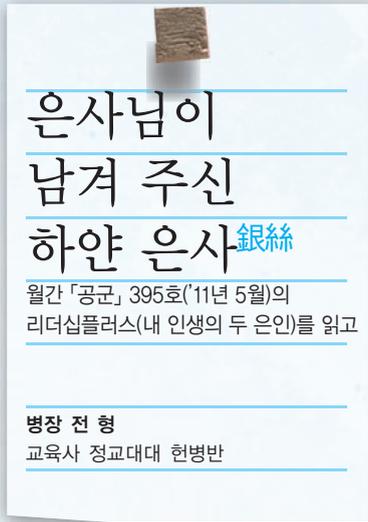
은사님의 숭고한 가르침
은사(銀絲) 속에 고이 접어두고

영내에서 한뼘한뼘
그 마음을 살펴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은 제자였을까
수줍은 한 고등학생에게 주신 희망
연필에 강인한 필체와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은사(銀絲)의 부드러운 숨결은
제 인생을 호호하게 하고
세상에 내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군복에 진흙이 묻고
얼굴에 진흙이 묻어도
은사(銀絲)에 묻혀 주신 하이얀 진흙은
제 손발에 남아
이렇게 시로 스칩니다



먼 저, 이 시를 제 은사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글을 수줍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3월이 끝나갈 무렵, 은사님께서는 조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종이를 나눠주셨습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은 A4용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인들의 좋은 명언이나 글귀 밑에 생각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소신 있게, 그러나 소극적으로 써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더 생각한 게 있을텐데 더 쓰지 그랬어.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다. 너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잘 쓰는 애들도 없어. 생각이 무척 독특하구나.”

1주일 후, 교무실에서 격려해주는 은사님의 말을 들은 저는 이 말씀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거나 권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글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후원해주는 분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피하려고만 했던 글을 당당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최선의 정성을 담아 하루도 빠짐없이 지혜로 여는 아침을 제출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주최 논술 경시대회’. 은사님께서 이 문구가 담긴 공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 차례의 제 만류는 은사님의 강한 권유로 되돌아왔습니다. 논술대회의 결과는 놀랍게도 금상이었습니다. 저는 은사님의 배려가 이렇게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경이로운 생각과 동시에 은사님께서 손수 알려 주신 제 능력을 존중하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저는 대외상을 20개 가까이 수상하여 대학에 문예부문 자기추천 전형으로 합격하는 쾌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은사님의 배려에 힘입어, 저는 지금도 일과 후에는 멋진 생각들을 글로 담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플러스를 읽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셨던 김은희 은사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님과 스승의 모습을 모두 갖춘 참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은희 은사님께서 저에게 지식과 지혜를 모두 일깨워 주셨고, 사장될 수 있었던 능력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리더십플러스에서 말하는 행운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글의 마지막을 보면,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 입장의 사고방식, 관심, 칭찬과 인정,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리더십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은희 은사님! 은사님께서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한 멋진 분이셨습니다. 이를 잘 실천해 주셔서 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제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은사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글로 많이 표현해서 공군뿐만 아니라 사회 만방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뵈어 따뜻한 포옹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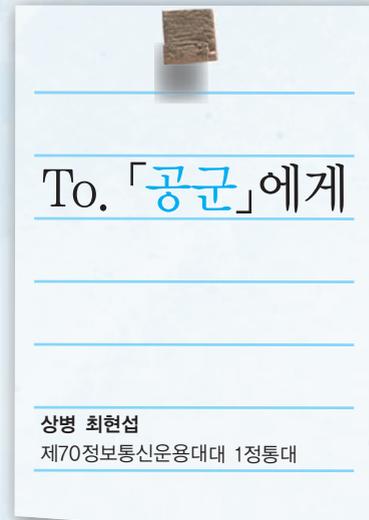
어떻게 글을 시작해서 이어가야 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공군이 저에게 준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악 채워보려고 합니다.^^ 「공군」지를 처음 접하게 된 건 2010년 지금 이곳, 계룡대에 전입 온 다음부터입니다. 처음 온 사무실에서 「공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계속 눈길이 가게 되더군요. 정말이지 간절했습니다. 그러기를 30분째...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선임병이 「공군」지를 보고 있으라고 건네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저의 계급상 좋은 걸 최대한 숨기고 그때부터 열심히 정독했습니다. 군대에서 잡지를 보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영광이었고, 더불어 생각만 해도 설레는 「공군」지를 보는 것이 더 없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공군」지를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런 연유로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항상 「공군」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전입 온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역시 「공군」지의 애독자입니다. 한 번은 그달 발간된 「공군」지를 보지 못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공군」지를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유독 작업이 많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달 나온 「공군」지를 손에 넣지 못했고, 허탈함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동기가 「공군」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만 새로운 「공군」지를 봤다는 기쁨이 앞서서 동기가 보고 있던 걸 빼앗았습니다. 결국 동기와 말다툼을 하게 됐죠. 지금은 서로가 「공군」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하나씩 챙겨주기로 약속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피식 나오지만, 그 덕에 동기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 「공군」지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럴 수 있는 것도 다 공군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라면 설렘? 공군을 생각만 해도 저의 가슴은 설렘니다.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이, 설레는 데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는 바로 공군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군을 잘 알게 해주는 「공군」지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공군」지를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열렬히 「공군」지를 사랑할 겁니다. 그런 연유로 전역을 해서 한 부 신청하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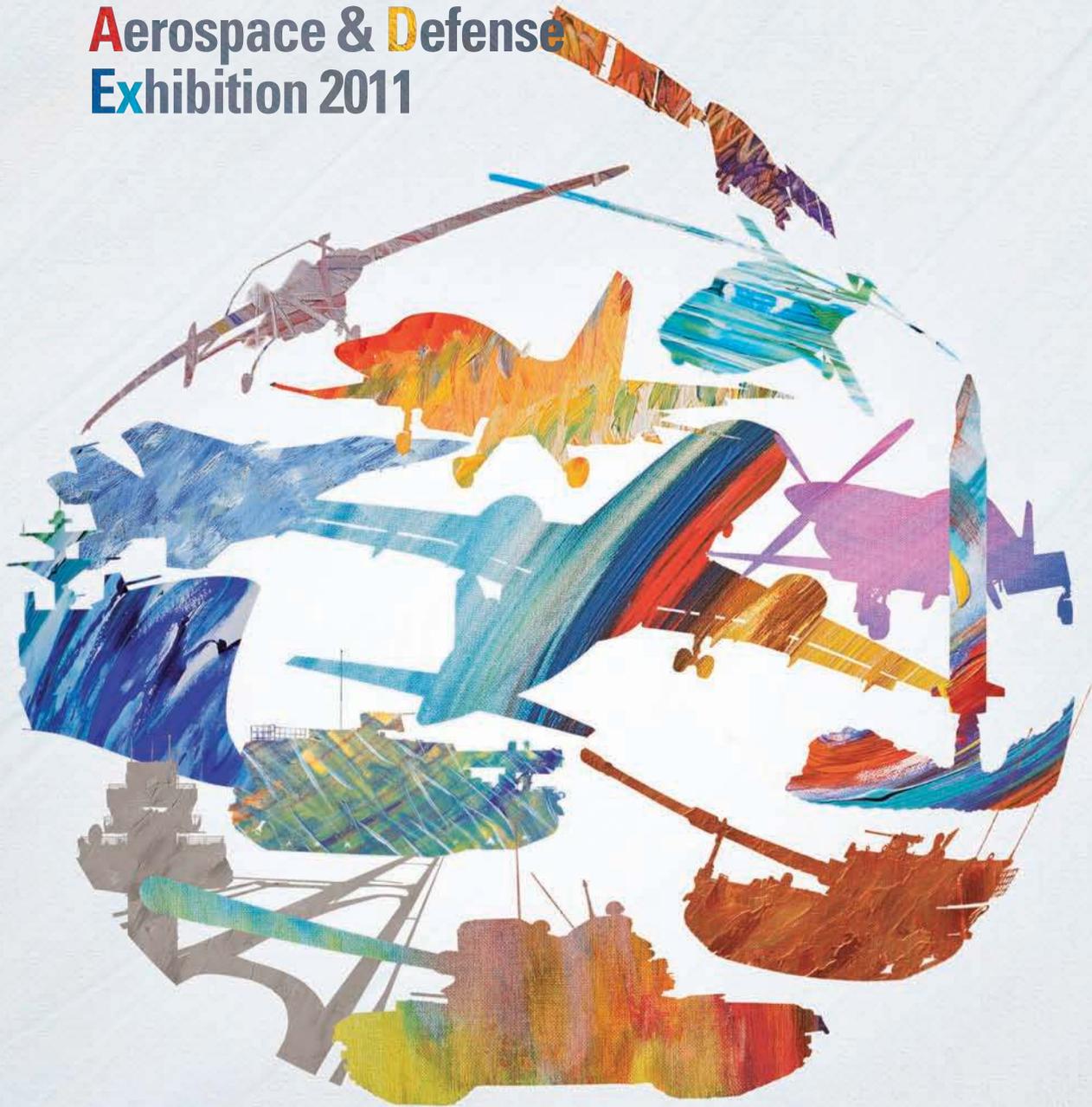
항상 성장하는 모습의 「공군」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늘 새로운 시도로 새롭게 다가와 주는 「공군」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커갈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고 함께 같이 성장해 준 「공군」지가 있어 군생활이 행복합니다! 10월이면 400호가 되는데 계속 성장하고 멋있게 변하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애독자 편지가 「공군」지에 큰 힘이 되길 꿈꾸어 봅니다.

매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군」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AF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1



10.18(TUE)~23(SUN), 2011

SEOUL AIRPORT

Business Day : 10.18(TUE)~21(FRI)

Public Day : 10.22(SAT)~23(SUN)

www.seoulairshow.com

www.seouladex.com

공군 IN + ?

空軍 → 空軍 → 공군 → 공군

월간 「공군」의 어제 · 오늘 · 내일



E-737 1호기 인수행사

참모총장은 9월 21일,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 거행된 E-737 1호기 인수식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하늘의 전투지휘사령부인 E-737 1호기를 인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E-737 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고, 연합·합동작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운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주관하였으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역대 참모총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전력화를 축하해 주었다.

추석 비상대기 근무자 격려

참모총장은 9월 12일, 6전대, 7전대, 울릉관제대대, 김포포대의 추석 비상대기 근무자와 화상 지휘통화를 통해 비상대기 근무현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여러분의 임무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중추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재해·재난 비상대기 근무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장병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텐데 악·폐습 근절 노력과 함께 자주 연락을 드려 걱정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포대 현장지도 방문

참모총장은 9월 10일, 추석연휴에 즈음하여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현장지도 일환으로 안성포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적의 도발 시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건전하고 활기찬 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포대장의 안정적 부대관리와 포대원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 노력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연구원장 접견

참모총장은 9월 9일, 항공우주연구원 김승조 원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는 수준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군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의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항우연과 같은 외부기관과의 견고한 협조 체계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업무 협조와 공군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AIR FORCE MONTHLY

2011. 10. NEWS

작전반경 확대 및 임무체공시간 증가로 유사시 즉각 대응능력 신장 대한민국 영공에서 최초 공중급유훈련 실시

우리 공군이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공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서해 상공에서 약 2주 동안 진행됐으며, F-15K 조종사 8명과 F-16 조종사 8명이 미 공군 교관조종사 9명과 함께 총 4회(주·야간 각 2회)에 걸쳐 공중급유 비행을 실시하고 공중급유자격을 획득했다.



**공군, 피스아이(Peace-Eye) 1호기 인수식 열어...
피스아이, 한반도 영공 감시의 눈을 뜨다**



공군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1호기 인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력화 준비에 들어갔다. 인수식은 9월 21일 15시, 김해기지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렸으며, 원우철 국회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보, 방위사업청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등 내외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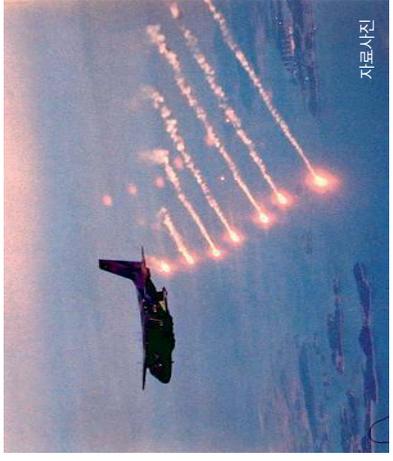
이날 행사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청와대 안보특보의 대령 축전 낭독, 공군참모총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수로 이어졌으며, 조기경보통제기 운영부대장인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장과 보잉사 E-737 사업대표의 인수서명으로 피스아이1가 공군에 정식 인도되었음을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확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드높은 자긍심이다."며 "피스아이(Peace-Eye)라는 이름처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민음직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현 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피스아이는 안보위협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육·해군 및 미 공군과도 상호 연동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각 군 및 美 공군과의 유기적인 공유체계를 구축해 연합·합동작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인명구조를 위한 빛을 밝히다!

5전비, 화재 여객선 인명구조를 위한 야간 조영지원 작전 수행

제5전술공수비행단(이하 5전비)은 9월 6일, 화재가 발생한 여객선의 인명 구조를 위한 야간 조영지원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6일 새벽 부산항을 출발한 여객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및 승무원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먼저 출동하였다. 그러나 야간에 해안과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어둠에 의해 인명구조가 원활하지 않고, 2차적



지표사진

인 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5전비에서 비상대기 중인 조종사, 정비사 기상무장사 요원들은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공중기동기 CN-235로 출동하였다. 5전비 요원들은 기지로부터 86마일(약 140km) 떨어진 구조현장으로 이동, 조영탄 약 70여 발을 투발하여 어두운 밤바다를 밝게 비추었다. 5전비의 조영지원 아래, 인명피해 없이 승객 및 승무원 127명을 전원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다.

5전비 단장 이영근 준장은 "이번 조영지원 작전의 성공은 평소 실전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완벽한 임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한 군대, 강한 공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공로
공군,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아**



공군본부 인사참모부가 9월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군은 인성검사와 스트레스 진단을 통해 자살 우려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병영생활

상담관과 정신과 군의관에 의해 관리하는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공군에서 복무하는 전(全) 기간 동안 자살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본군사훈련 정규과정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편성하고, 부대 전임장병 대상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실시, 중대급 자살예방 교관 양성 및 멘토링 제도 운영, 24시간 사이버 상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실질적인 자살사고 감소로 이어져, '11년 8월 현재 사고 건수가 전년도 동기(1~8월) 대비 무려 70%나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공군본부 인사근무복지처장 문경섭 대령은 "모든 자살예방교육을 부대의 지휘관·참모가 먼저 받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살사고 없는 공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 한·미 공병분야의 비행장 피해복구 능력 제고
작전사령부, 한·미 연합 비행장 피해복구 훈련 실시**



작전사령부는 9월 8일, 제11전투비행단 피해복구 종합훈련장에서 한·미 장병 70여 명과 덤프트럭, 로더 등의 피해복구 장비 20여종, 24대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연합 비행장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한측 11전비와 미 8전비의 피해복구반 요원들로 구성된 연합 피해복구대가 대형 폭파구를 긴급 복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측이 폭파된 활주로를 골재로 메우고 다지면, 미측에서는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복구면의 강도와 편평도를 측정하고 접개식 유리섬유 매트(FFM : Folded Fiberglass Mat)를 설치했다. 뒤이어 이어진 오후 훈련에서는 한측과 미측이 서로 임무를 바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 사용된 접개식 유리섬유 매트(FFM)는 경량화된 활주로 피해복구 자재로 최신에 전투기 운영에 적합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난 2009년 말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한 작전사령부 시설처장 김종범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 피해복구 통제소를 처음으로 구성함으로써 복구 현장에 대해 운영·통제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임무수행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의미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복은 달려도 우리는 전우"
5전비, 해군 작전사령부 생활반장 공군 체험 지원**

제5전술공수비행단(이하 5전비)은 9월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해군 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 소속 생활반장 병사 61명을 부대로 초청해 기지 견학 및 공군 체험을 지원했다.

해군의 모범 병사에 해당하는 생활반장을 대상으로 공군 임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관·안보관·군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기지 체험은, 지난 4월 5전비 간부들의 해작사 방문 견학에 이어 양군의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답방이다. 해군 병사들은 부대 역사관을 둘러보고 CN-235 수송기를 견학하며 대한민국 유일의 전술공수임무 전담 비행단인 5전비의 전력과 현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군 체험에 참여한 이 대호 해군 병장은 "바다와 하늘이라는 서로 다른 무대에서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과 공군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니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투철한 군인 정신은 일치될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5전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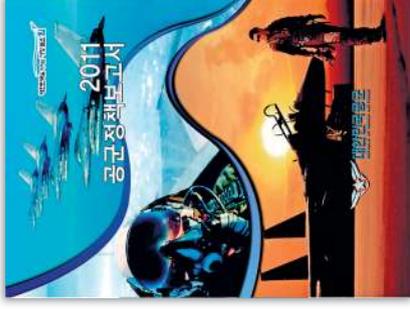
역사와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늘지킴이와 바다사나이가 조국의 푸른 영광과 영해를 함께 지켜 나갈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한 공군의 비전을 한눈에!
2011 공군 정책보고서 발간**

공군의 비전과 정책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를 한데 모은 '2011 공군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인보환경과 국방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공군 기본정책방향과,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최상의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 대비 선진 군수역량 구축', '다기능·고효율의 경제적 군 운영' 등 공군 발전 필수과제를 담았다. 공군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주요 내용을 평문화하여 알기 쉽게 재구성했으며, '11년 공군 5대 정책중점, 5세대 전투기 개념 및 기술개발 동향, SD(Spatial Disorientation, 공간정위실상) 개념을 비롯해 항공기 명명법, 조종사 양성과정 등 공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내용들도 부록으로 함께 담아 재미를 더했다.

공군본부 정책조정과장 윤기철 대령은 "공군의 주요 현안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군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물론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항공시설 건설 및 운영방안 제시
공군, 'Smart Green Airport R&D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군은 9월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Smart Green Airport R&D'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세계적 화두인 '녹색성장'을 키워드로 항공시설 운영관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내·외 학계 전문가와 美 7공군, 한국건설기술원, 항공산업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녹색성장 R&D 산업 정책 및 전망, 공항 신기술 및 적용사례, 공항의 미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성일환 참모차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동참하여 국방개혁차원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비행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항공시설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송보장을 위한 군수지원태세는 우리에게 맡겨라!
40보급창, 군 책임운영 최우수 부대 선정**

군수사령부 제40보급창이 2010년 군 책임운영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

정책평가연구원(KIPE) 주관으로 시행된 평가에서 40창은 RFID, 중앙물류체계 구축 등 첨단 물류관리시스템 도입과 대팀제, 품질혁신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0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수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0년 군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

는 영예를 안았다.

군 책임운영부대란 운영효율성 및 서비스품질 향상과 성과중심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전투·작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 및 군수지원분야 기관장을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공개채용한 후,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부대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40창은 지난 2009년 군 책임운영부대로 전환된 바 있다.



**위기탈출 넘버원!
공군, '유류사고 사례집' 발간**



공군본부는 최근 10년간의 공군 내 유류사고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책자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유류관련 사고를 발생유형별로 누유사고, 품질결함, 급유차 사고 등으로 분류하고, 각 사례별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교훈을 함께 담아 장병들이 간접체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류취급 장병들이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포켓북 형태로 제작해 휴대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사례별 사진자료를 첨부해 실용성을 높였다. 특히, 누유사고에 대한 초기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한 단계별 조치절차를 자세하게 담아 장병들이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군본부 물자과장 권승원 중령은 "완벽한 유류관리 업무는 항공작전의 안정적 지원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Green Airforce 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무요원들이 쉽고 빠르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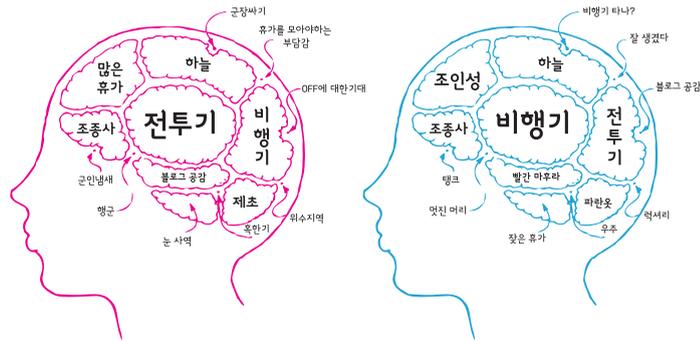
1)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특집앙케이트 - 400명에게 물었다! 공군 병사들의 인식MAP

※ 이 앙케이트 조사에는 4개 부대의 공로병사, 4개 대학의 여대생들이 도움을 주셨다.

월간 「공군」, 400호를 맞아 색다른 기획을 준비했다. 바로 2011년 공군병사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사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 이 앙케이트는 비단 병사들뿐 아니라 병사들과 더불어 임무를 해야 하는 공군의 모든 장병들, 그리고 한때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든 예비역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앙케이트 대상은 좀 특별하게 구성했다. 공군병사 200명과 여대생 200명.. 도합 400명(왜? 400호니까). '공군병사들의 머릿속을 탐구하는 데 생동맞게 웬 여대생?' 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앙케이트의 의도는 공군병사들의 머릿속이라는 주제에 관해 병사들 스스로 그린 이미지와 다른 이들이 그린 그림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래 집단으로서 동세대를 살아가는, 하지만 성별과 군 복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이질적 집단인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사해 보는 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 아래 그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Q1〉 공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차이인지 알겠는가?

위에 있는 뇌 구조 그림 중 어느 쪽이 공군병사인지, 어느 쪽이 여대생인지 알 수 있겠는가? 정답은 왼쪽이 공군병사, 오른쪽이 여대생이다.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세한 차이가 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전투기'와 '비행기'의 차이! 여기서 우리는 '전투기'와 '비행기'의 용어차이처럼 공군병사와 여대생이 바라보는 공군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스로 바라본 공군과 외부에서 바라본 공군은 이렇게 다르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향하여~ Let's Go~!

〈Q2〉 왜 공군을 선택할까?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그룹 모두 공군에 입대한 첫 번째 이유를 '좋은 근무환경 및 복지'로 꼽았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공군병사들의 경우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답변이 많았고, 여대생들은 공군의 좋은 이미지와 하늘에 대한 동경을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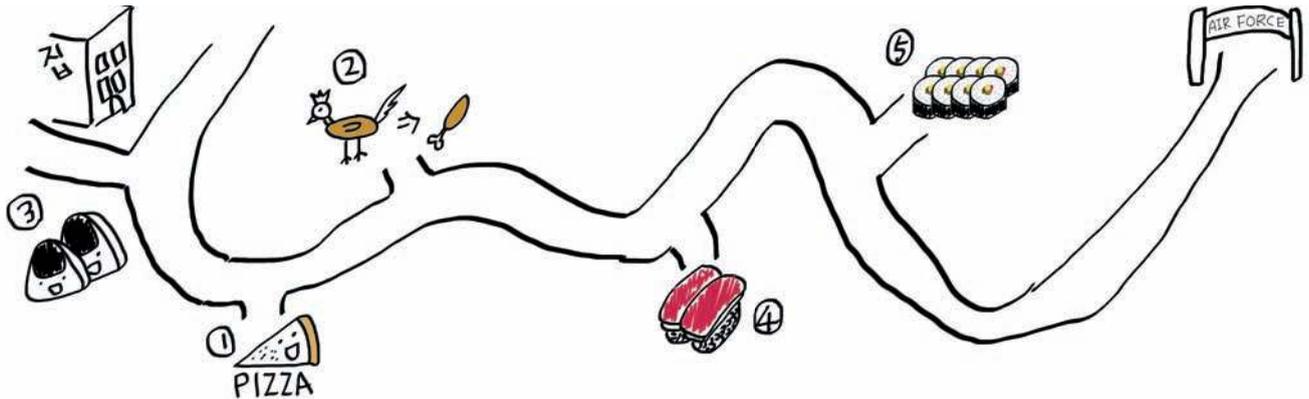
〈Q3〉 공군장병이 가장
군인답다고 느낀 것은
언제인가?

필자가 공군인들이 가장 멋져 보일 때는 아무래도 **가장 군인답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과연 여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전투기를 조종할 때, 임무에 충실할 때, 발 맞춰 걸어가갈 때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지만, 필자를 뺀 터뜨린 최고의 답변을 뽑자면 다음과 같다.

남자답고, 터프하게 전투기에 올라탈 때!(응? 응? 응?...)

〈Q4〉 면회 때 꼭 있어야 하는
음식은?

군 생활에 있어 최고의 낙을 꼽자면 **휴가**와 **면회**가 아닐까 한다. 가족들 혹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면회하기 위해 천릿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줬을 때, 그 기분은 아마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그 중에서도 면회 때 가져오는 바깥 음식(?)은 평소 부족했던 기름기를 충족시켜 줄 하늘의 축복과도 같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면회를 올 때 꼭 거쳐야 할 음식점 코스를 특별히 알려주겠다.(집에서 가까울수록 반드시 사와야 하는 음식이다.)



재미있는 건 공군병사와 여대생 모두 음식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군 생활 부동의 간식 1, 2위를 다투는 피자**와 **치킨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집밥(도시락)**이 3위, 4위가 초밥(?), 5위가 김밥이다. 그러므로 면회를 갈 때 집에서 김밥을 싸 후, 일식집에 가서 초밥을 사고, 부대 근처에서 따뜻한 피자와 치킨을 산다면 최고의 면회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짬밥(?)을 통해서 필수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지만,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아무 때나 먹기 힘든 법. 특히 주말에만 면회가 허용되는 공군부대의 특성상 주말을 기다리는 것은 공군병사들에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Q5〉 공군장병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걸 그룹은?

군인에게 '휴가'와 '면회'를 제외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연예인이 아닐까 싶다. 그 중에서도 아이돌 여성그룹은 팬을 넘어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돌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만큼 아이돌 여성그룹이 넘쳐나는 대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 공군병사들은 어떤 아이돌 국(國)에 속해 있을까? 그리고 성별이 같은 여대생들이 보기에 공군병사들은 어떤 아이돌국(國)에 속해 있을까?



초기 아이돌 세계 지도(걸그룹의 발원)



원걸제국의 천하



군소 아이돌그룹의 등장 및 판도 변화

아이돌 세계지도의 시대적 변화

핑크, SES 이후 미개척지였던 아이돌 여성그룹대륙은 SM과 JYP라는 두 걸출한 세력에 의해 양분되었다. 이후 JYP의 원더걸스가 'Tell Me'로 전국을 통일한 뒤, 이에 반발하는 아이돌 여성그룹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다.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를 아이돌 여성그룹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른다.



현재 아이돌 세계 지도(네티즌 주장)



현재 아이돌 세계 지도(공군 주장)



현재 아이돌 세계 지도(여대생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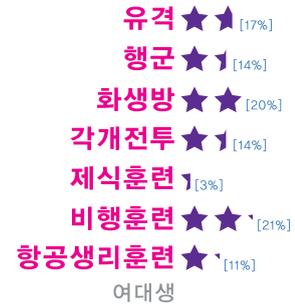
예상외인가 예상대로인가

현재는 원더걸스의 미국령 확장이라는 무리한 시도로 인해, 소녀시대가 대륙 최고의 패권자리에 올랐다. 한국, 일본, 최근 K-Pop의 열풍으로 유럽까지.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이 성장할 때 그랬을까? 소녀시대의 질주는 끝이 없어 보인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소녀시대가 **군 내·외를 막론하고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그룹들은 각 지역에 군소세력들을 형성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공군병사들에게 있어 티아라국과 아이유왕국의 영향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다는 것! 지난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있었던 영웅호걸 촬영이 주 원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또한 '다다익선'이라고 **멤버들의 숫자가 많은 그룹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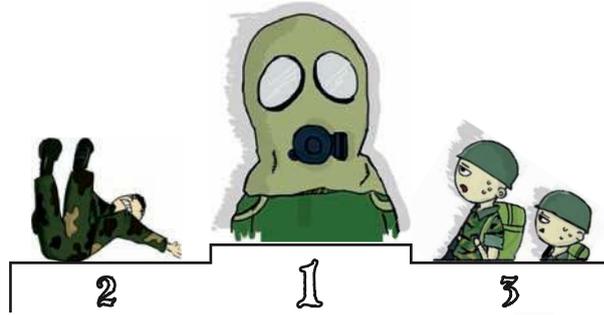
〈Q6〉 각종 훈련 때 가장 힘들었던(힘들 것 같은) 훈련 종류는?

조국의 영공방위수호를 위해 오늘도 밤낮없이 임무수행에 전념하는 공군인! 그런 공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훈련들이 있다는데... (특히 이 문항만 공군인이 받는 모든 훈련을 종합해 질문했다.) 과연 공군병사들과 여대생들이 보는 훈련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공군장병 vs 여대생
화생방 vs 다 힘들겠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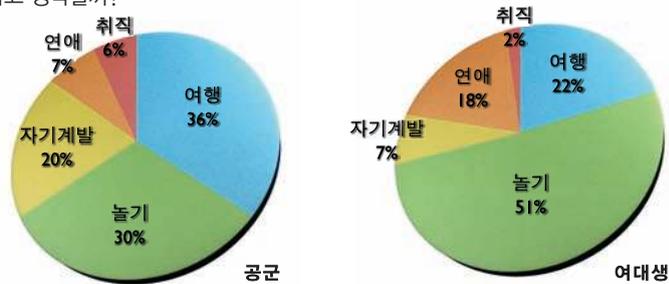


두 그룹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가? 여대생들의 답변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훈련에 대해 잘 모르고 답변했으리라 추측된다.), 공군병사들의 선택은 화생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 답변을 통해 종합순위를 매긴다면 다음과 같다.(항공생리훈련, 비행훈련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답변대상자들이 조종장교가 아닌, 공군병사들이기 때문이다.)



〈Q7〉 전역 후 제일 할 것은 무엇인가?

공군병사들에게 **전역**이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간절히 기다리고 꿈처럼 느껴지는 전역 이후에 과연 공군장병들은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을까? 또한 여대생들이 보기에 공군병사들은 전역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할까?



진지하게, 충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공군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 답변에서 우리는 두 그룹간의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여대생들이 보기에 공군병사들이 전역하면 미친 듯이 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1%나 되는 반면, 공군병사들의 답변은 겨우 30%에 불과했다. 오히려 여대생들이 간과했던 자기계발(7%)이 공군병사들의 경우, 세 배 정도(21%) 높았다. 의외로 연애는 7%에 불과했다. (정말?) 여기서 우리는 군인들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과 다르게, **공군병사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케이트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조사한 양케이트를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밖에 재미있는 양케이트 결과가 많았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보여드리지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하며, 양케이트 설문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양케이트를 통해 공군병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공군병사들도 지금보다 멋지게 더 군생활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AF**

공군지의 어제

월간 **공군**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한
61년간의 여정



창간호에 실린 공군독립기사모음



월간 「공군」 창간호(1950. 4.)



김정렬 제1대 공군참모총장 창간축사

축! 월간 「공군」 400호 발간

6·25전쟁이 일어나고 60여 년이 흘렀다. 이 시간은 우리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발전, 확장시켜 온 시간이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세월이다.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통합하고 지배하던 사고(思考)의 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화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군」지는 대한민국 공군의 중요한 가치들을 견지하며, 공군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공군」지는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1) 아쉽게도 이 책에는 정확한 발행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2) 원제, "Do we really have Air Power?"
- 3) 미국의 작가. 언론인.
- 4) 천둥소리 구천을 울리고 위험한 진동이 사해에 펼쳐진다.



월간 「공군」 창간호에 실려있는
최용덕 국방차관의 훈시

월간 「공군」 창간호는?

공군본부 작전국에서 발간한 월간 「공군」 창간호는 1950년 4월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된다.¹⁾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월간 「공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공군순보(코메트)」, 「Airmen's Weekly(공군위클리)」 등 보다 일 년 이상 앞서 발간된 공군의 최초 월간 간행물이다.

둘째, 분단 이후 북한의 침략전쟁준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위협을 감지하고 있던 당시 공군인들은 공군력의 중요성과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공군력을 분석한 '우리는 실로 공군력을 확보하고 있는가?'²⁾라는 벤 코시바(Ben Kocivar)³⁾의 글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우리 공군인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창간호를 정훈감실이 아닌 작전국에서 발행한 점이다. 공군 정훈감실 창설이 그해 4월 1일이었는 점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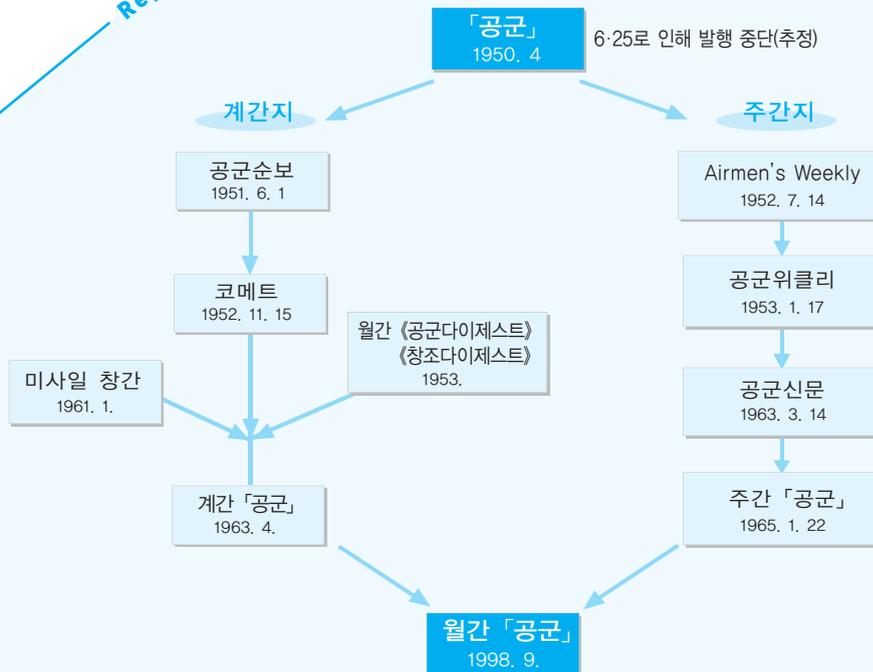
넷째, 창간호의 글이 모두 공군인들에 의해 집필된 데 반해, 「공군순보」는 김기완 정훈감이 주도하되 공군문인단 작가들이 편집에 참여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항공관련 글들이 주를 이뤘던 반면, 후자는 문학, 사상 등의 교양 글들도 수록되었다.

월간 「공군」 창간호에서는, 최형덕 국방차관(당시 직책, 제2대 공군참모총장)의 훈시, 김정렬 제1대 공군참모총장의 창간축사,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자 유명한 서화가 오세창 선생의 “뇌공구소 위진사해(雷轟九霄 威振四海)⁴⁾ 창간 축하서예, 장지량 대위(당시 계급, 제9대 공군참모총장)의 '공군 창간에 앞서서'의 글이 눈에 들어온다. 그 외 대일항쟁기 우리나라 항공역사, 미국, 소련 등 선진국의 항공역사, 항공전쟁사를 다루면서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방공, 조종교육, 전기, 무선기, 기상 등 공군력 각 분야 전반에 대한 기사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월간 「공군」의 뿌리와 계보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의 나이는?

- 창간호 기점시 61년 6개월
- 코메트와 미사일을 통합해 계간 「공군」지를 발간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48년 6개월
- 계간 「공군」과 주간 「공군」이 통합돼 현재 월간 「공군」 모습을 갖춘 때부터 계산하면 13년 1개월이다.

국가수호와 공군력 강화에 앞장선 공군 간행물들

1950



공군위클리



코메트 제2호

전쟁 중 탄생한 공군 간행물들

「공군」은 창간호를 낸 뒤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년 2개월 만에 변형된 모습으로 재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군순보」이다. 1951년 6월 1일 창간된 「공군순보」는 당시 공군문인단 작가들이 직접 편집하였고⁵⁾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수록되었다. 「공군순보」와 「코메트」⁶⁾는 군사지식, 시사상식, 중군작가단의 시와 소설 작품들을 수록하고 최신 항공지식, 전쟁 전사자 관련 내용들을 다루었다.

1952년 7월 창간된 「Airmen's Weekly」는 신속한 뉴스 전달의 역할을 맡았다. 「Airmen's Weekly」는 1953년 1월 17일 제호를 「공군위클리」로 바꾸었다. 「공군위클리」는 전시상황에서 사상적으로, 행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알려야 할 것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신문사의 '사설' 격인 '논설'을 매주 발표하였다.

「공군순보」와 「코메트」가 '대포' 역할을 했다면 「Airmen's Weekly」와 「공군위클리」는 '박격포' 역할을 한 셈이다.⁸⁾ 「공군위클리」의 편집 실무자였던 이재환 선생⁹⁾은 이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고생 무지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위클리」 만든다고 활자를 찾아 조판을 짜고 인쇄한 것 일일이 교정을 보고, 군고구마로 끼니를 이어가며 추운 날에 조판실, 인쇄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척 힘들었어. 당시 민주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병사로 오는 거야. 병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것도 「위클리」의 중요한 역할이었어.”

1950년대의 공군간행물, 승리의 신념과 전후복구사업, 공군력 강화 강조

전쟁말기에 월간 「공군 다이제스트」¹⁰⁾, 월간 「창조 다이제스트」¹¹⁾ 등도 간행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정세의 해설과 항공지식 등 공군의 전문지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뤘다. 이들 간행물들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신념¹²⁾과 싸워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으며, 향후 공군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들 간행물들은 공군력 강화와 전후복구, 국민 위로, 공산주의 배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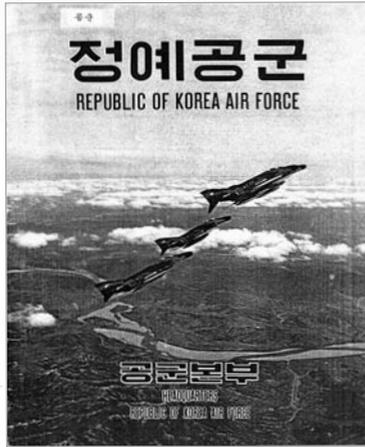
5) 이상노, 방기환 작가 편집 전담, “창공구락부 시절-이 단체가 결성되기까지”, 최인욱, 「공군」 제131호, 1972년.
 6) 1952년 11월 15일, 「공군순보」를 「코메트」로 제호 변경, 150여 쪽 분량, 매월 발행.
 7) 1952년 11월 15일, 「코메트」로 개칭하여 발간을 지속시켰다. 마해송은 “군인은 문인을 믿고 민은 군인을 믿고 한결 같이 싸워야만 민족과 국가가 흥할 수 있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고 피력.
 8) 「공군위클리」, 27호, 1953. 7. 20.
 9) 당시 정훈장교. 공군중령 예편.
 10) 1953년 2월 당시, 지령 3호 발행.
 11) 1953년 5월 당시, 지령 9호 발행.
 12) “너희 공군으로 백일이 빛난다”, 조지훈, 「공군」 제2호, 통권 205, 206호, 1988.
 13) “남개와 펜의 우정”, 방기환, 「공군」 제2호, 통권 205, 206호, 1988.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공군 간행물

1960



당시 '미스 공군 선발대회' 기사



1972년도 「공군」지

1970



1970년대 주간 「공군」

1960년대 간행물들의 변화, 계간 「공군」지와 주간 「공군」의 출범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절이자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체제경쟁의 드라이브는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6·25라는 참화의 기억이 생생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철저한 '반공'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1961년 1월에는 공군장교들을 위한 전문교양학술지 「미사일」이 창간됐다. 반면 「코메트」는 1962년 1월, 폐간을 맞게 된다. 「코메트」와 「미사일」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코메트」가 지금의 월간 「공군」처럼 국민과 공군의 대내·외 가교 역할을 하는 간행물이라면, 「미사일」은 항공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된 간행물이었다. 이 두 잡지는 양자의 장점을 살려 1963년 4월, 계간 「공군」지로 통합된다.

한편 「공군위클리」는 1963년 「공군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고, 1965년 1월 426호부터 주간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다.¹⁴⁾

정신교육과 공군문화 발전의 최일선에 선 「공군」지

이 당시 「공군」지의 형식상의 큰 변화를 언급한다면, 기존의 국·한문 혼용에서 1969년 한글전용으로 바꾼 점을 들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1960년 초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글¹⁵⁾에서부터 군이 국민의 군대임을 재확인하는 글¹⁶⁾, 팬텀기 인수와 공군 20돌 기념 기사 등의 공군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글¹⁷⁾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불안전하나마 평화와 안정을 되찾으면서 문화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군 간행물들은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활공비행¹⁸⁾ 및 모험항공기 대회를 통한 항공사상의 홍보, 「빨간마후리」, 「성난 독수리」 등 항공영화에 대한 홍보¹⁹⁾,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관련 기사, 군민유대 강화를 위한 공군군악대의 활약 기사 등이다. 1960년대 미스공군 선발대회²⁰⁾는 시대적 변화를 알려주는 상징적 행사이다. 일회성 혹은 유행에 편승하는 행사로 폄하할지도 모르나, 전후 사기진작을 위한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후 복구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14) 주간 「공군」, 제425호, 1965. 1. 22. 김영호 정훈감은 '주간 「공군」을 폐하면서'의 글에서, "주간 「공군」은 상의하달의 매개역할을 다하면서 정신무장 강화의 걸침이 되는 한편 기술군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충실한 반력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15) 「정신무장예의 노력을 강조하자」, 제253호 「공군위클리」, 1959. 12. 16.

16)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있을 수 없다」, 제264호, 「공군위클리」, 1960. 4. 20.

17) 「축, 한국 공군 팬텀기 인수, 음속 2.5배」, 「공군」지 제112호, 1969. 10. 1.

18) 「멋진 하늘의 스케이팅」, 「공군위클리」, 1962. 11. 14.

19) 「공군신문」, 1964.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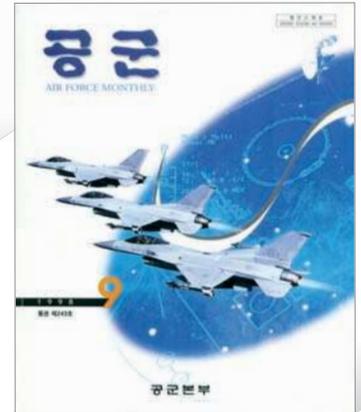
20) 「공군위클리」, 1962. 6. 30.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공군」지

1980 1990



1981년도 「공군」지



계간에서 월간으로 바뀐 첫 번째 「공군」

80~90년대의 주간 「공군」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개최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국제사회는 냉전의 시대가 가고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와 자유화 물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특히 1980년, 1000호를 맞는 주간 「공군」은 두 가지 커다란 기조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헤쳐 나갔다. 공군 전력증강의 중요성 강조 및 민주주의의 사상 수호가 바로 그것이었다.^{21,22)} 공군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국산화 등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공군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인 제안들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신세대를 위한 정훈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내용을 모색했다.

주간 「공군」은 공군본부의 동정, 각종 작전 및 훈련, 공군 이미지 광고, 참모총장 훈시문, 공군 칼럼, 부대 소식, 교육, 안보, 가치관, 인성교육, 군사평론, 장병들의 문예, 만화 등을 다채롭게 다루면서 공군인들의 정신적 벗이 되었다. 1980년 주간 「공군」 제1000호 기념 '공군칼럼'에서 김희중 대령은 "장병들이 주간 「공군」이라는 활자매체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게 꾸며질 수 있도록 많은 작품을 보내어 보다 알찬 장병들의 벗이 될 수 있게 성원을 바란다."고 하였다.

계간 「공군」지 200호 발간

계간으로 발간된 「공군」지는 1987년 2월에 200호를 맞이하게 된다. 200호에서는 한반도의 정세와 안보, 소련의 태평양 전략, 급진 좌경세력의 형태 분석, 경제적 현실과 북한의 올림픽 방해 책동에 대한 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월간 「공군」시대의 개막

1998년 9월, 「공군」지 243호부터 계간에서 월간으로 변화되고 주간 「공군」은 월간 「공군」에 통폐합된다. 월간 「공군」은 공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군의 대표 간행물로 거듭난다.

월간 「공군」은 공군의 문화, 공군 장병 구성원들 간의 내부 공감대 형성, 공군 이미지 고양, 장병의 교양, 정서함양, 소통 등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독자층이 좁은 논문 형태의 글들을 지양하고, 소프트한 글들의 비중을 높였으며, 이미지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여백도 많이 넣어 편안함을 주었다. 내지를 아티지로 고급화하여, 전반적으로 시각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내용구성을 보면 시사, 군사지식, 교양물, 수기, 화보 등과 아울러 공군정책에 대한 무거운 주제도 빼놓지 않았다.

1998년 9월, 계간에서 월간으로 바뀐 「공군」지의 창간호에서 연세대 서정우 교수는 "월간 「공군」의 창간에 즈음하여"의 글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월간 「공군」은 그동안 공군에서 발행해 온 주간 「공군」과 계간 「공군」의 한계와 약점을 적절히 보완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하면서 21세기 항공우주군 도약의 발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군지 창간 40주년 특집호

- 21) "공군이념교육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신전력 연구논문", 「공군」, 제1호, 1990.
- 22) 「공군」지 1990년도 제1호에 실린 한공우 경희대 교수는 "정신전력은 물질전력, 기술전력 그리고 운용전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곧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문화의 수용과 정신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가치질서와 상호 작용으로 이뤄지는 통합된 인간의지의 올바른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불멸의 '공군정신' 계승자로서의 월간 「공군」

새천년을 맞은 월간 「공군」

1997년 7월(253호)부터 계간 「공군」은 공군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 웹페이지 형태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으며, 이는 1980년 월간 「공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2001년 5월(275호)부터는 PDF를 도입해 모니터상에서도 실제 「공군」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표지는 그 달의 이슈나 화제가 되는 주인공의 사진을 담아, '항공'과 '기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모습이 좀 더 드러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월간 「공군」은 새시대를 맞아 항공분야 내용으로서 '공군비전 2025'²³⁾나 '공군비전 2030'과 같은 선진공군건설과 관련된 내용, KT-1 훈련기 개발²⁴⁾ 및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 등에 힘입어 세계항공산업 10위권 진입 등과 같이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기술 발전 모색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동시에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의 내용을 공군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신세대 장병과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여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²⁵⁾

'소통'을 위한 월간 「공군」²⁶⁾

2000년대의 월간 「공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공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드러내어 극복하는 방안까지 공개하는 것은 군 성격상 쉬운 일이 아니다. 잦은 전투기의 추락사고²⁷⁾, 항공기 소음문제 등 부정적 사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도 숨기기보다는 법적·기술적 해결책 제시와 대화와 협의 등 자성과 설득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추락사고의 경우,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고난도 비행훈련 중에 일어났다는 점, 정비임무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어려운 분야라는 점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공군역사상징인물'과 같이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공군역사를 되돌아보고 복원하면서, 오늘을 투영해 보는 성찰의 노력²⁸⁾도 빼놓지 않았다.

「공군」지의 어제와 오늘, 「공군순보」에서부터 월간 「공군」까지

2001년 9월호 월간 「공군」에서는 '공군사의 산증인, 「공군」지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에서 "계간 「공군」은 계간의 이점을 살려 전문적인 내용과 정책제시에 중점을 두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군내·외의 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전문성에 치중한 나머지 대중과 호호하려는 노력 역시 미흡했다. 한편, 주간 「공군」은 계간 「공군」과는 반대로 발 빠른 소식전달에는 효과적이지만, 소식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간과 주간의 우성형질만을 골라 참신한 기획과 최신 편집기술로 합성한 것이 바로 월간 「공군」이다."라고 자평하였다.

「공군」지에 대한 평가는 2007년도에도 있었다. 2007년 6월호 월간 「공군」 대담코너에서 공군사관학교 신영덕 교수는 "월간 「공군」이 군 간행물이기는 하나, 공군에 대한 충고나 비판의 글도 수록하면서 「공군」지만이 할 수 있는 핵심

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대 공군 간행물에는 "많은 종류의 담론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핵심담론에 대해서는, "첫째는 공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담론이고, 둘째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담론이며, 셋째는 바람직한 사회에의 지향을 보여주는 담론이다. 이들은 1950년대의 한국 지성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월간 「공군」의 핵심담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지나온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의 경종'과 함께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월간 「공군」

공군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로는 「공사신문」을 비롯하여, 「에이스」, 「항공기술 정보」, 「안전」, 「해동청」, 「공군평론」, 「항공전략」, 「하늘」, 「에이스리더십」, 「날개」, 「항공우주군사발전 연구」, 「방공」 등이 있다. 1950년대에는 두세 개의 간행물로 해결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기간행물의 만행으로 공군과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월간 「공군」은 공군의 전략, 공군의 가치기준, 그리고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또한 공군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들을 감안하며 주제를 선정하고 취재할 것이다.

「공군」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통이 있다.²⁹⁾ 앞으로도 월간 「공군」이 '항공의 경종', '자유'의 경종 뿐만 아니라 '군인은 시민을 위한 시민'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위한 경종³⁰⁾으로 장병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60여 년간 지켜온 「공군」지의 관계자 모든 분들, 집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AF**

23) 월간 「공군」, 2000년 1월호. 2025기획단 심우성 대령은 "21세기 첨단 과학 공군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공군의 모든 유무형 체계를 단순화하여 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체계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장 요구를 달성하는 보다 융통성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 "KT-1 용비의 최초 출하식에 즈음하여", 월간 「공군」, 2000년 11월호.

25) 월간 「공군」, 2002년 10월호. 1997년 여생도를 처음 받아들여 2002년 고등비행훈련을 마칠 때까지 과정을 소개했다.

26) "참모총장이 T-50을 시험비행하다", 월간 「공군」, 2005년 2월호.

27) "공보장교들이 총각네 아재가게는 왜 갔을까?", 월간 「공군」, 2006년 4월호.

28) 월간 「공군」, 2009년 11월호. 2009년 10월 23일 성남기지에서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식 및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29) 자기고백과 반성을 주제로 한 Green Air Force Campaign으로 시작한 일곱 가지 운동.

30) "두 조종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 월간 「공군」, 2007년 8월호.

31) "공군의 핵심가치의 창군사적 고찰", 월간 「공군」, 2006년 12월호, 2007년 2월호.

32) "정의를 위해 돌진", 최용덕, 「공군위클리」, 1953. 2. 20.

33) "인간성의 보장과 자유를 위하여", 「공군위클리」 41호, 1953. 10. 26.



공군지의 어제

여각대 편집실담당에게 들어본다



예)중령 이재환
공군본부 공보과장,
편집과장, 문화과장,
군사과장 역임

1 1953년 초, 나는 10명을 뽑는 공군정훈장교 선발에 응시해 합격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후25기로 타 병과 후보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지만 공군 정훈장교 공채 1기였던셈입니다. 1953년 6월,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내가 국어선생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공사 국문학 교수로 재발령이 났어요. 전시상황이라 교수 수급에 문제가 있어 나를 데려간 건데 정훈감실에서 난리가 났죠. 결국 본부 정훈감실로 돌아와 《공군위클리》 16호부터 기획, 편집을 담당했어요.

2 한 국가의 공군 기관지로서 전통과 권위를 지켜왔는데 후배들이 자랑스러워요. 그 많은 세월동안 「공군」지를 거처간 모든 공군인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싶군요. 솔직히 나는 초창기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감정도 있어요.

1 31대 정훈공보실장 김구진입니다. 지금은 국내 최대의 방산업체 LIG Nex1에서 홍보담당 고문으로 있습니다. 「공군」지를 처음 담당했던 때는 중위로 기억해요. 1982년 9월부터 1983년 12월 까지. 당시 문화홍보과의 선임 장교는 소령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중위였던 제가 간 거예요. 문화홍보과 전체업무를 총괄하면서 「공군」지도 담당했었죠. 스페이스 챌린지부터 장병위문공연 등. 그때가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2 제가 담당했던 호가 두 자리 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30년 가까이 지나니 벌써 400호가 되었네요. 제가 원고를 편집했을 당시에는 전부 수작업이었어요. 원고지에 원고를 받아, 자수를 세고, 편집대장에 기사와 사진을 하나하나 배치시키고... 또 당시 「공군」지는 흑백의 경지로 제작되었는데, 중간에 화보로 들어가는 컬러면수를 확대하는 것이 「공군」지 담당자의 욕심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공군」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한 점을 꼽고 싶네요. 그리고 400호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공군」지와 편집자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3 제가 '82년 12월 25일, 결혼을 했어요. 당시 문화홍보과 선임장교와 「공군」지 편집업무를 병행하던 시기가 신혼 때였습니다. 선임 장교의 역할 때문에 「공군」지를 편집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마다 집에서 「공군」지를 편집했었어요. 그 때문에 부부싸움도 꽤 했죠.



대령 강성구
공군본부 공보과장

1 공군본부 공보과장 강성구 대령입니다. 처음 「공군」지를 맡았을 때는 1988년, 중위 때 2년간 했죠. '98년 이전까지 계간으로 발행되던 「공군」지를 처음 월간으로 개편할 때도 편집담당장교로 일했습니다. 계간지는 시의성이 떨어지고 장병들이 자주 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평하면 지금 월간 「공군」의 틀을 제가 만들지 않았나 싶죠(웃음).

2 '87년에 임관했으니, 군 생활의 시작을 「공군」지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지 400호를 맞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공군사가 공군의 정사라면, 「공군」지는 공군의 문화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군」지는 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군인들의 정서, 철학, 공군 선배들의 꿈과 희망, 시대정신을 전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군」지는 L4부터 지금의 E-737까지 공군역사와 호흡을 같이한 유일한 기록매체예요.

공/통/질/문

- 1. 자기소개!
- 2. 400호에 대한 소감?
- 3. 편집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4. 월간 「공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
- 5. 편집실에게 하고 싶은 말!

3 1953년 공군 정훈감실은 대전역 근처에 2층짜리 목조건물에 있었어요. 한겨울에 군고구마를 먹어가며 편집하고 집필하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모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때는 활자들을 일일이 골라서 판을 짜고 지형을 뜨고 그러고 나서 인쇄를 했어요. 원고를 검토하고 그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인쇄과정에서 활자가 닳아 버리는데 대담코너에 웃는 광경을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하하)”가 “(히히히)”로 인쇄되어 당사자였던 김영환 대령이 자기를 바보로 만들었다며 권총을 들고 정훈감실에 쳐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에피소드라는 건...말로 표현 못하죠.

4 요즘 월간 「공군」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것 같아요. 내 정서로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게 시대에 맞는 편집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군위클리》처럼 「공군」지가 좀 더 사상적,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 공군을 칭찬하는 일색보다는 공군을 비판하는 글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군」지 기획, 편집이란 결국 정훈정신과 맞닿아 있는데, 월간 「공군」이 국방관계자들, 정치인들, 국민과 장병에게 실질적으로 좀 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공군」지는 대한민국 공군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비전(Vision)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군」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공군의 비전은 당연히 함께 가야 합니다. 항공우주군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5 「공군」지를 편집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연출하는 감독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연출자가 좋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고민하고 공연을 총지휘하면서도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편집자도 좋은 콘텐츠를 담기 위해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지의 편집자가 걸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부심은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고의 시간을 거쳐 한 생명이 탄생하듯이, 매달마다 옥동자를 생산하는 마음으로 「공군」지를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예)총장 **김규진**
LIG Nex1 홍보담당 고문,
31대 정훈공보실장



3 제가 「공군」지를 담당하고 있던 시기는 한창 학생운동이 격렬했던 시기였어요. 한번은 코란도 방송차를 타고 취재를 나갔다가 모 대학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경찰로 오해를 받아 화염병에 맞을 뻔 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지만...(웃음) 당시에는 공군 정훈감실에서 사용하는 방송차량이 경찰지휘차량과 비슷한 모양이고 공군 제복과 경찰제복도 유사했거든요. 아주 십년감수했죠(웃음).

4 「공군」지는 공군을 창설하신 초창기 공군선배님들의 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 없이 불씨를 지피고 이를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과학군의 특성상, 특기가 전문적이면서도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공군」지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5 아프리카사를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알껍질’을 깨야 합니다. 기존의 틀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말/말/말! 내게 있어 월간 「공군」이란?

이재환 청춘. 20대 청춘을 공군정훈에, 「공군」지에 고스란히 바쳤기에.

김규진 진통의 꽃. 한 달 내내 「공군」지를 만들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열매는 무엇보다도 달콤하기에.

강성구 내 삶을 운택하게 만들었던 '선물' 이자 청년장교시절의 추억!

김남일 공군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공간!

서동명 내 인생에 큰 자신감!

손제연 내 모든 국방의 의무, 훈련이고 행군이며 전투!



(예)중위 **김남일**
〈한겨레21〉 기자

1 2000년 2월 사관후보생 103기로 임관했습니다. 중위로 진급한 이후, 2001년 5월 공군본부 문화홍보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때 월간 「공군」 편집을 맡았죠. 제가 일할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 편집담당' 시스템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진기를 돌려 메고 기사를 쓰러 출장을 갔습니다. 2003년 3월에 제대를 할 때까지 그런 생활이 이어졌죠. 그해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법조팀 기자 등을 거쳐 지금은 〈한겨레21〉에서 주간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편집을 할 때 아마도 300호 기념호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코메트〉, 〈미사일〉에서 월간 「공군」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정리하는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료실·자료실 등을 뒤져 색아 부서질 것 같은 50년 전 책자들을 조심스레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400호네요. 이러다 1,000호까지 볼 거 같습니다.

1 저는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동명입니다. 월간 「공군」을 2003년 1월부터 2004년 1월 전역할 때까지 담당했었고, 당시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2 제가 월간 「공군」을 담당했을 때 300호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때 300호 특집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300호 특집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회의에서 지나가는 말로 지금까지 월간 「공군」을 담당했던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사정상 실현되지 못했는데, 대신 '나중에 간담회 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100호가 지나가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는 영광이 주어졌네요.^^

3 제가 맡을 당시 새롭게 기획한 코너가 '만나고 싶습니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군 출신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제가 아주 좋아했던 '김재박' 감독님 인터뷰도 했었죠.



(예)중위 **손제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1 저는 별도 선발을 통한 첫 번째 「공군」지 전문 담당장교를 맡았었습니다. 사후 115기이고요. 처음 「공군」지를 담당했을 때가 2006년 3월호이니 전역할 때까지 35권을 발행했네요. 덕분에 공군에 대해서는 가장 초심자였던 제가 「공군」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2 제가 편집담당일 때 400호를 맞이했다면, 본인이 자기생일 챙기는 것처럼 남사스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허겁지겁 마음에 쫓겨 급히 만들어 낸 저작들은 마치 내 얼굴인 마냥 어찌나 부끄러웠는지요. 하지만 전역 후 돌이켜 보니 「공군」지의 지난 호들은 개인작품이 아닌, 공군과 함께 호흡했던 역사라곤 할 잠시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역한 지금도 전전공공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제가 중대한 무언가를 누락시킨 건 없는지 말이죠.

3 월간 「공군」 편집과 출력, 제본은 공군사관 학교 교재창에서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당시에도 중위에게 배차해 줄 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군본부에 오자마자 운전면허를 따서는 공군 본부에서 공군사관학교까지 한 달에 많게는 열흘 정도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면허를 딴 첫날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공군사관학교로 갔는데요, 어머니가 모시던 '스틱' 차량이었습니다. 국도에서는 시동을 몇 번이나 꺼트렸죠. 지금 하라면 못할 일이지요.

4 제가 편집을 할 때는 병사들의 입장에서 월간 「공군」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기관지 성격의 책자는 높은 분들의 눈을 의식하기 쉽죠. 또 대외적으로 공군을 대표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어깨 힘이 들어간 편집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월간 「공군」의 1차 독자는 공군의 근간인 병사들이라는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실로부터 '3군 발행 책자 중 월간 「공군」이 최고' 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5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쌓이는 게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 펜과 풀과 가위를 들어 정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역사와 전통입니다. 공군에서는 월간 「공군」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4 「공군」지를 통해서 공군 내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군」을 통해서 공군 외부에서 공군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공군을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내부와 외부의 조화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점을 조화롭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월간 「공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사보나 기관지가 폐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상황에서도 월간 「공군」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월간 「공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특히, 내부 독자인 공군 장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가져야겠죠?

예) 중위 서동성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3년 동안 공군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돌아다녔는데, 따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 기억에 남죠. 무엇보다 공군의 역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제 마음속의 멘토가 되어주신 많은 공군 가족들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4 공군 전체에서 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역사 의식이 없는 공공매체는 무의미하니까요.

5 아직 전역한 지 기껏해야 3년, 제가 「공군」지를 만든 기간과 같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편집실을 바라볼 마음의 준비는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저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공군지의 어제

다시 읽는 공군

9월호 「공군」지,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에 발행된 399번째 「공군」지를 받아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군 간행물 표지로는 생소한 ‘사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산뜻하고도 재기발랄한 표지사진 때문이었다.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표지는 그 한 장 만으로 공군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기존상식을 뛰어 넘는 독창성, 국민에게 친근함으로 다가가는 봉사정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전문성까지... 읽어 본 사람은 누구나 공군의 영원한 팬이 되게 만드는 공군의 얼굴 「공군」지가 어느덧 400호 발간을 맞이했다. 햇수로는 무려 60여 년의 세월... 세월 따라 「공군」지도, 독자도 많이 변했을 테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읽는 순간 공군에 매료됐을 법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들을 찾아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았다.

전후세대들에게 고하는 노작가의 당부

1980년대 이전까지의 「공군」지는 장교를 주 독자층으로 하는 전문교양지로, 정치, 외교, 안보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달이 주를 이루는 다소 딱딱한 느낌의 계간지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 국제적으로는 냉전시대의 종식으로 인해, 이전까지 전 국민에게 세뇌되다시피 했던 6·25의 비극과 반공정신이 서서히 희미해져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공군」지는 공군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훈교육자료와 군사지식들로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했었다. 1985년 여름에 발행된 「공군」지(통권 제193호)의 목차를 보면,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국제정세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하단 수필코너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띈다. 바로 얼마 전 작고하신 한국문단의 거목 고 박완서님.

30여 년 전인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중견 소설가로 왕성히 활동 중이셨던 박완서님은 ‘6월이 오면’이라는 수필을 통해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서울대 문리과 신입생이던 꿈 많은 스무 살의 여름날이 갑자기 들이닥친 6·25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박완서님 특유의 편안한 어조로 잔잔하게 풀어냈다. 그

러나 글이 주는 여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먹먹하게 다가오니, 당시 독자들에게도 단 두 페이지의 이 수필이 다른 어떤 전문적인 칼럼보다도 가슴속에 뜨거운 다짐을 가져다주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나는 곧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상이 한 번 크게 뒤척이는 앞에서 사사로운 행복의 꿈은 큰 과도 앞의 모래성만큼이나 허약하고 허망하다는 걸. 곧 6월 25일이 되었고 포성이 들렸고 3일 만인 28일엔 서울이 괴뢰군 총칼 밑에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가장 찬란하던 6월은 가장 잔혹한 6월이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처음 본 주검은 공교롭게도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의과대학의 녹음 밑에서였고 하나도 아닌 무더기의 주검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주검이 아니라 파리가 모이고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의 더미였다... (중략)... 불길한 예감은 순식간에 적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석 달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잃었다. 내가 전쟁이 싫은 건 전쟁 자체의 잔혹성보다도 전쟁이 얼마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나 하는 그 돌발성 때문이다. 가장 잔혹한 전쟁일수록 가장 그럴듯한 평화의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무서운 사실 때문이다... (후략).”

- 박완서님의 수필 ‘6월이 오면’ 중 -



1985년 여름호(제193호)



1992년 제220호

특집 / 멋진 공군이 되기 위한 조건

‘멋’ 공군의 자격

90년대 들어서 「공군」지는 그 대상을 장교에서 전 장병으로 확대하면서 논문과 군사지식을 다루는 부분은 다소 줄이고, 모든 신분과 연령층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화되었다. 그 중 1992년 발행된 통권 제220호의 기획특집기사가 눈길을 끈다. ‘멋진 공군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하에 9명의 현역 장교가 나름대로의 견해를 담은 글들을 실었다. 으레 군대라고 하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라 여겨지는데 20여 년 전, 우리 공군의 화두는 ‘힘’이 아닌 ‘멋’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글들을 읽어보면 그 ‘멋’이란, ‘힘’ 즉, 완벽한 ‘영공방위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완벽한 ‘영공방위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또한 ‘멋’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기획특집기사 중 ‘방공포병 장병에게’라는 글은, 바로 한 해 앞인 1991년, 육군에서 공군으로 소속이 바뀐 ‘방공포병’ 병과 장병들에게 공군의 특성에 맞는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병사들을 간부들의 명령을 실행하기만 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닌, 간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능동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개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군=신사적?’, ‘국제신사의 자격’ 등 다른 글들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멋’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미래지향적인 선진공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비록 아홉 명의 필진이 모두 영관급 장교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20년 전에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공군의 이미지와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고심했다는 점에서,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공군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1994년 제229호

신세대 장병의 등장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20대 이하 젊은 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인 ‘신세대’. 1991년 캐나다의 소설가 더글러스 쿠플랜드(Douglas Coupland)가 출간한 장편소설인 〈Generation X〉에서 유래된 용어인 ‘X세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신세대’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1994년 겨울호(통권 제229호)에는 ‘어떤 신세대’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만화가 실렸다. 군에 입대한 신세대 병사의 생활상을 흥미로우면서도 애정어린 비판으로 담았다. 군용품이 아닌 ‘사제’ 물품을 사용하고, 짧게 깎은 머리에 무스를 발라 치장, 군대 밥이 입에 안 맞는다고 BX에서 군것질로 끼니를 때우고, 수시로 공중전화통을 붙잡고 있는가 하면 선임에게 따박따박 말대답까지 하는 다소 골치 아픈 이등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또 다른 캐릭터인 선임병을 통해 이러한 신세대 병사의 개인주의적 행동을 꼬집지만,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맡은 바 임무는 확실히 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표현하려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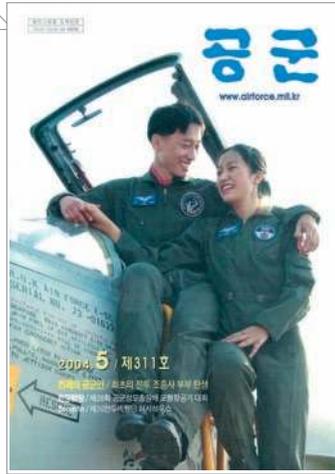
그 당시 ‘신세대’라고 주목과 비판을 한몸에 받았던 이들이, 지금은 삼십대 중후반, 군대에서도 어엿한 중견 간부가 되었을 텐데, 그들 역시 후배 ‘신세대’들을 향해 놀라움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진 않을까...



1999년 제249호



2002년 제292호



2004년 제3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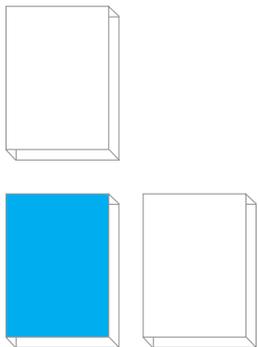
최초의 전투조종사 부부 탄생

1997년, 공군이 3군 중 최초로 여성에게 사관학교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 여생도, 여군에 대한 기사들은 컬러사진과 함께 한동안 「공군」지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공군 최초의 자매 사관생도(1999년 3월호), 최초의 여성 조종사 5인방(2002년 10월호) 등 표지모델로 등장하기도 여러 번. 그 중에서도 단연 백미는 2004년 5월호를 장식한 '최초의 전투조종사 부부 탄생' 일 것이다.

역사적인 주인공은 공군사관학교 49기 동기생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정준영, 박지연 중위(2004년 당시 계급). 따로 커플룩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조종복에 빨간 머플러가 자연스럽게 커플룩이 되어 전투기를 배경으로 찍은 다정한 한 컷은 핑크색 하트가 뚝뚝 묻어나올 것만 같은, 「공군」지 역사상 가장 달달한 표지가 되었다.

표지를 장식한 것으로도 모자라 본문에서는 두 페이지에 걸쳐 이들이 동기생에서 연인, 부부로 인연을 발전시켜 온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게다가 활주로를 배경으로 정복을 입은 신랑 정 중위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박 중위의 행복한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공군 활주로에서 웨딩촬영을 한 커플은 이들이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이들의 결혼 소식은 당시 「공군」지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었는데, 그토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랑의 서약을 한 이들 부부는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풋풋한 중위였던 두 사람은 어느새 임관 11년차의 베테랑 조종사가 되어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을 닮은 예쁜 아이들도 낳고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훈훈한 후문이다. 2004년 5월호 「공군」지가 이들 부부에게는 대대로 물려줄 가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Read Again
Air Force Monthly Magazine



1995년 여름호



1999년 10월호

「공군」지 속의 별사탕, 그녀들...

90년대 이후 「공군」지에는 종종 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더불어 공군 장병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등장한다. 1995년 여름호에는 공군을 주제로 한 최초의 TV 드라마 '창공' 제작 특집이 실렸는데, 요즘은 TV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탤런트 나현희 씨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나현희 씨는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인 공군사관학교 간호장교 역할을 맡았다.

이런 기사는 사진이 중요한데, 남자 출연진(가수 김원준 씨와 탤런트 나한일 씨)들과 함께 찍은 흑백사진 한 장 뿐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당시 「공군」지를 접하는 장병들에게는 군인 일색인 「공군」지에서 흑백의 여자 탤런트 사진 한 장일지언정 건빵 속의 별사탕처럼 반갑고 소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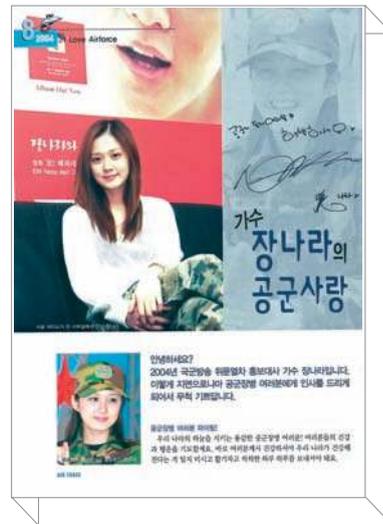
5년 후인 1999년 10월호는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다. 그 중 눈에 띄는 얼굴이 있으니,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주인공, 탤런트 김현주 씨이다. 데뷔 초기의 옛된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 신선하다. 몇 페

이지 더 넘겨보니 지금은 어엿한 한류스타의 반열에 오른 탤런트 송혜교 씨의 메시지가 한 페이지 가득하다. 볼살이 통통한 고등학생 송혜교의 깜찍한 모습도 그렇지만, '공군 오빠들'로 시작하여 '멋지다, 너를 하'다, 심지어 '공군 오빠들과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는 흐뭇한 내용을 읽으며 공군 장병들은 별사탕을 봉지째 건진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문득 생기는 궁금증 하나... 과연 그 메시지는 송혜교 씨가 직접 쓴 걸까? 혹시 송혜교 씨에 빙의된 센스만발 정훈장교의 솜씨는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또 5년 후인 2004년 8월호에는 가수 장나라 씨의 인터뷰 기사가 선명한 컬러사진들과 함께 2면에 걸쳐 게재되었고, 이후로도 고아라 씨와 한효주 씨, 게다가 여성 독자들을 설레게 하는 조인성 씨까지 「공군」지에서 인기스타를 만나게 되는 기회는 점점 늘어날 듯하다. 그러나 생활관에서든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요즘이니, 그 감격의 크기는 옛날 누런 「공군」지 속에서 조그만 흑백 사진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발견했을 때의 감격에는 비할 바가 못될 것이다. **AF**



1999년 10월호



2004년 8월호

공군지의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A to Z

1. 한눈에 보는 월간 「공군」 ('11년 9월 기준)

창간시기 : 1950년 4월(추정)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편집감수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장

편집담당 : 간행물편집담당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발행면수 : 60페이지

발행규격 : 220*275mm

발행주기 : 매월 말

발행부수 : 10,000부(대외: 6천여 부, 대내: 3천여 부)

배포장소 : 전 공군부대 및 정부기관(국방부, 합참 포함), 국회, 언론사,
각 대학도서관 및 예비역 공군독자, 그리고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상내역 : 한국사보협회 창립 22주년 회장 특별상

향후계획 : 향후 모바일 프로모션 진행 예정(E-book 제작,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앱(App) 개발)

특이사항 : 1. 각군 기관지 중 가장 빠른 발행주기!

2. 각군 기관지 중 가장 젊은 편집자!

3. 전군 최초 QR(Quick Response)코드 탑재('11년 2월호)

2. 월간 「공군」지 편집담당의 한달살이

매달마다 끊이지 않고 돌아오는 뒤편우스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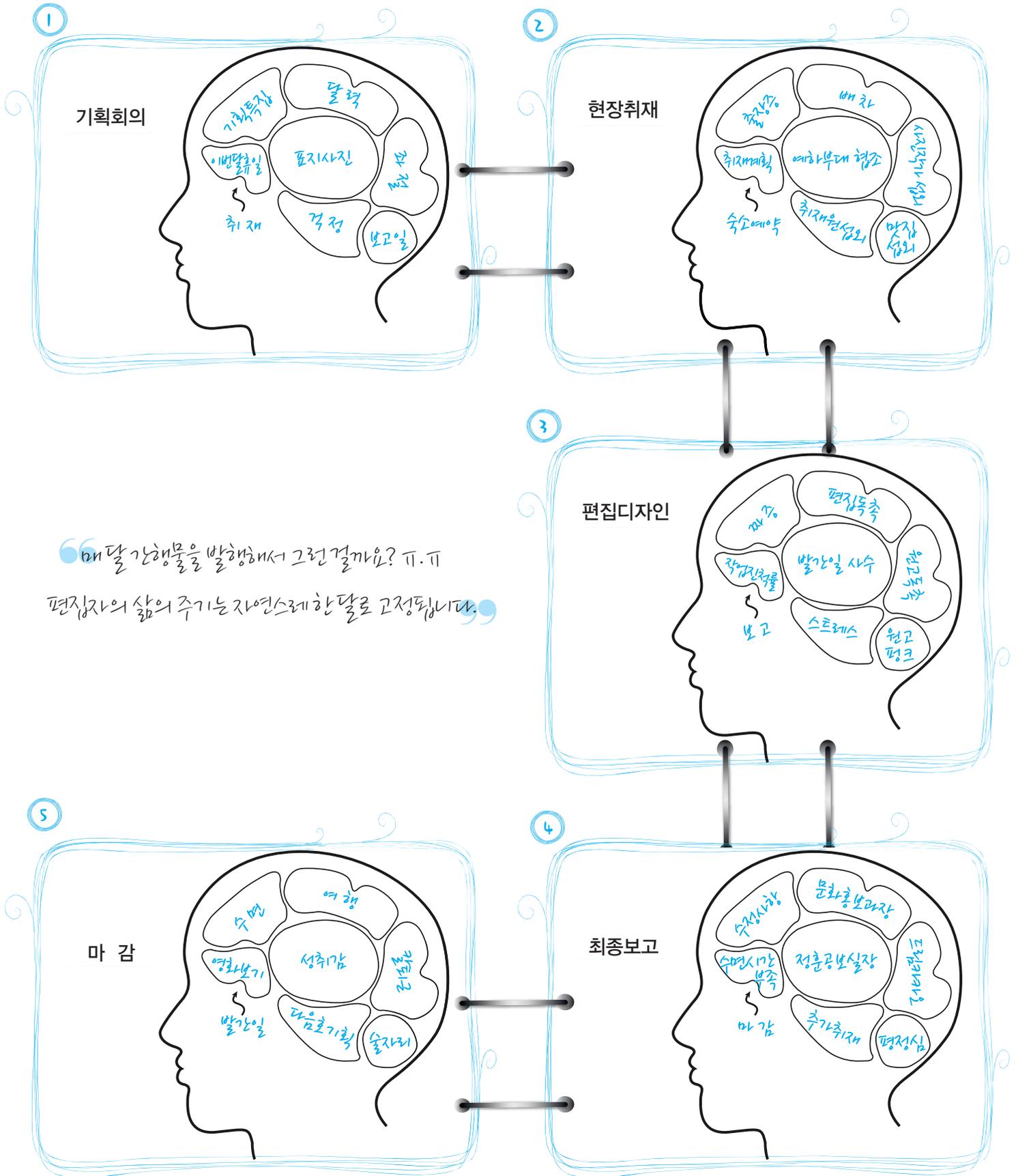
월간 「공군」 편집자의 한달살이



1. **기획회의**의 새로운 잡지 제작을 위한 아이템 회의로 매월 1일부터 2~3일간 지속되는 회의.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는 어렵음.
2. **현장취재/원고청탁** 아이템 중 취재와 기고가 필요한 부분을 각각 나누는 단계임. 매월 가장 중요한 현장취재는 기획특집과 표지사진 촬영임. 필진들의 일정을 배려해 미리미리 청탁하는 것이 편집자 신상에 좋음. 현재의 인력구조상 한 호에 취재횟수가 3회를 넘기면 매우 힘든 한 달을 각오해야 함.
3. **원고작성** 현장취재를 다녀온 편집자에게 부과된 속제로 현장감이 남아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관건임. 이때 편집자가 글에 수준 이상의 욕심을 갖게 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주의요망.
4. **원고교정** 외부 청탁원고는 빛의 속도로 교정이 가능함. 해당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 검색이 작업시간을 좌우함.
5. **편집디자인** 매월 15일 이후부터 그동안 쌓아놓은 원고를 들고 국군인쇄창을 향해 고고생! 능숙한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아 텍스트와 이미지가 시각화되는 과정. 국군인쇄창은 1년 내내 거의 피크 시즌(peak season)이므로 일일작업량에 관심을 뒤야 함.
6. **디자인교정** 디자이너와 1차 편집디자인 본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편집자는 방향을 잘 잡아주고, 디자이너는 편집자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시기임.

7. **최종보고** 60페이지 가편집본을 가지고 중간보스 문화홍보과장을 넘어서야 함. 그 이후 최종보스 정훈공보실장에게 도전. 이때 패배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8. **최종편집** 보고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최종수정을 함. 여기서 수정사항을 놓치지 않고 최종수정에 반영해야 함.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고 마감을 하는 게 관건임.
9. **마감/제판** 최종수정을 마치고 편집자가 OK결정을 하는 순간을 '마감'이라 칭함.
10. **인쇄/제본/발간/배포** 인쇄에는 2일 정도 소요되고 제본은 반나절이 걸린다. 즉 인쇄가 시작된 시점에서 3일째 날 오후에 책이 발간됨. 계룡대 지역 배포(반나절 이상 소요)는 편집자가, 군내배포는 우체국, 군외배포는 전문 DM업체에서 담당한다. 배포는 상당히 잔손이 많이 가는 작업!
11. **각종 행정처리** : 문서처리, 원고료 및 배송료 지급, 당첨자 상품 배송, PDF 인터넷 게시, 독자관리 및 민원처리, 마감이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돈을 만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이 요구됨! 이후 다시 기획회의로!

3. 제작단계별 편집자의 뇌구조 변화



“매달 마감행동을 바랑해서 그런 걸까요? ㅠ.ㅠ
 편집자의 삶의 주기는 자연스레 한 달로 고정됩니다.”



- 명도 류리교 「곤운」 간룡 -

이 끄마공 공들공 공께하과 받습니다.
 400호 받간하 기뻐도
 이공들 녀에 이 먼 류에도 룡간 「곤운」 이 나왔습니다.

름공 극Y공 쟁공 룡 「곤운」 간룡 의놈놈 룡
 운공급부에서, 논공인쇄창에서...



공군지의 미래

미래를 그리는 대화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처음에는 러프한 스케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스케치를 반복하다가 그 속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찾아낸다는 것이지요. 월간지를 만드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획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러프한 스케치부터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간「공군」이 400호를 맞았습니다. 여태껏 400개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쉬웠던 그림도 있었고 나름 만족했던 그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편집실에서는 이제까지의 월간「공군」을 돌아보고, 독자들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월간「공군」역대 편집장담당, 고정필진, 디자인장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군」지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해.

참석자

- 소령 조세영(공군본부 문화홍보과, 다매체기획담당)
- 대위 김세현(3여단 정훈공보실장, 前 월간「공군」편집담당)
- 대위 장동해(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정훈교육담당)
- 중위 손청진(공군본부 문화홍보과, 디자인장교)
- (예)중위 손제연(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前 월간「공군」편집담당)

400호를 맞아서...



조세영

먼저, 바쁜 와중에도 다들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운 옛 얼굴도 있고,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네요. 회포는 천천히 차차 풀도록 합시다(웃음).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대담은 월간「공군」400호를 맞이 기획된 자리입니다. 월간「공군」지의 현재를 진지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처방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모두들 허심탄회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김세현

제가 「공군」지를 담당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400호가 됐다고 하니... 느낌이 묘합니다. 제가 있을 때와 달리, 「공군」지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네요. 디자인도, 판형도, 예산도... (웃음) 사실 「공군」지를 맡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웃음) 지금은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처음에 맡아서 했을 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땐, 디자인과 인쇄를 계룡이 아닌 청주에서 했었으니까요. 2년 가까이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참 재밌는 일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하나의 역사로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큰 감동입니다.



손제연

정말이지 마감만 다가오면... 그 초조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핑크 날개' 하루 종일 맘 즐기고...(웃음)

솔직히 「공군」지 편집장교로 뽑히고 나서, 갓 임관한 소위에게 일을 맡겨봐야 얼마나 맡기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껏해야 편집을 보조하는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해보니, 편집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참모총장의 이름으로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위관장교로서는 도저히 경험해보기 힘든 공군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2007년도. 배우 한효주 씨가 그때 공군홍보대사여서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았죠(웃음).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 도종환 선생님이 당시 창공클럽) 초대 회장이셨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차남인 김신 前 참모총장님도 보였죠. 프로골퍼 미셀위 선수의 할아버지이자 국내 최초의 항공공학 박사인 위성규 박사님을 만났던 것도 떠오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화 '빨간마루라'의 각본 및 가사를 쓰신 한운사 선생님도 생전에 인터뷰했었죠. 지금도 가끔 그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월간 「공군」 VS 타군 간행물?



조세영

여기서 400호를 맞는 소회는 정리하기로 하고... 한번 타군 간행물과 비교해서 「공군」지의 장·단점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하

제가 생각하는 월간 「공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타군과 비교해서 '많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만드는 거라서 혹은 만드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 같아요. 제가 소위로 갓 임관했을 때, 예전 「공군」지는 단순한 부대 소식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때그때의 테마나 이슈를 정하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기사들로 지면들을 채우는 것 같아요.



손제연

시대의 흐름에 3군 중 가장 빠르게 발맞추려고 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군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했다고 들었을 때는 공군지는 정말이지 '얼리어답터' 구나! 이제 새롭게 월 도입하려고 하시나 기대도 되고... 또한 예전과 비교해보면 기획의 참신함이나 짜임새 있는 흐름도 칭찬할 만합니다.



장동하

「공군」지가 많이 발전한 것은 저도 인정해요. 내 글이 실려서 그럴지도 모르지만(웃음) 남들에게 줄 때 뿌듯함을 가지고 전해줍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공군의 내부, 특히 병사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를 테면 예전에는 병사들의 사연을 받는 '이등병이 쓴다!'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데 많이 아쉽죠...ㅠ.ㅠ)

「공군」지의 정체성은?!



조세영

방금 장동하 대위가 중요한 점을 짚었어요. 바로 「공군」지의 성격에 대한 것인데, 이 자리를 통해 「공군」지의 성격을 한번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필요(needs)로 하는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 아니면 독자의 요구(wants)에 부응해야 할 것인지 말이지요. 공군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우선인지, 독자들이 읽기 원하는 이야기가 우선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창공클럽 : 2007년 결성된 공군을 사랑하는 문인들의 모임

월간 「공군」의 미래 모습에 대해



김세현

「공군」지를 담당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지금 편집을 담당하는 류재영 소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군」지는 공군본부에서 참모 총장님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유일한 월간지예요. 당연히 공군의 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군의 이야기를 빼면, 「공군」이란 제호를 달 이유도 없죠. 그리고 추후 역사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군의 소식, 정책, 활동상을 일정 부분 이상은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군의 입장만을 무조건적으로 채워 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군」지는 현역과 예비역의 가교이자, 국민들에게 공군을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관지가 마찬가지로, 조직의 필요와 독자의 요구 사이의 어느 위치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할지는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요.



조세영

주제를 잠시 돌려 볼까요? 이것은 '씨네 21'의 디지털 매거진입니다. 얼핏 보면 E-book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터뷰 사진을 클릭하면? 짠~ 인터뷰 대상자가 실제로 인터뷰했던 동영상도 나옵니다. 기사가 쓴 인터뷰와 비교해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매체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매체와 수용자가 서로 영향(Interactive)을 주고받습니다. 한마디로 다이나믹한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매거진이다 좋은 건 아닙니다.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지요. 공공 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며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파악하고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홍보담당자들이 담당해 주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손청진

공군지의 주 독자층은 예비역이라고 들었어요. 잡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 주 독자층을 고려한 편집이 이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비역들이 원하는 걸 잘 캐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손청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군지의 주 독자층은 예비역들이예요. 솔직히 전자책은 예비역들이 보기 힘들어요. 지금 현역들이 예비역이 된다면? 그때는 가도 되겠죠. E-book의 몇 가지 장점을 꼽는다면, 우선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만 골라 볼 수도 있고, 60페이지라는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 담지 못했던 사진이나 기사를 담을 수도 있겠죠.



손제연

「공군」지는 참 많은 걸 요구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편집 담당이 참 힘들겠지만... (웃음) 사실 한 매체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산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공군」지는 블로그 '공감'과 전략적인 동행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블로그 '공감'과 중복되는 것을 과감히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복'이란 내용상으로 겹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상으로 겹치는 것을 말해요. 서로 매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군」지는 기사가 재밌지 않아도, 역사성이 강한 것, 기획 취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공군이 거쳐간 시대의 흐름을 「공군」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동하

처음 E-book 단말기가 나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쇄매체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완전히 대체했나요? 저는 인쇄매체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길 때 마다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 좋아하는 문구에 형형색색의 밑줄을 치던 기억들, 소중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줄 때도 유용하죠. 책은 그 자체로도 '소장가치'가 충분합니다. 반면 E-book은 재미없으면 그냥 지워버리기 십상이죠. 오히려 인쇄매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세영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메시지,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블로그 '공감'도 그런 면에서 「공군」지와 다르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편집 담당자들이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해왔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수많은 고민들이 지금의 「공군」지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공군」지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과 향후 발전전략



손청진

「공군」지를 보면 편집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다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런지,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의 매거진들과 비교해 보면... 한참 멀었죠. 잡지의 통일성도 부족하고, 표지의 일관성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흑백으로 발간됐던 「공군」지가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제한 시간 내에 재빨리 편집해야 하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아쉬운 따름이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채찍질하는 심정이랄까요.



조세영

저 역시 손청진 중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사보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카드 더블엠, 외환은행 라비, 쌍용 체어맨 같은 사보를 보면 디자인과 기획,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일차적인 요인이예요. 갈수록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청진

고급스러운 간행물을 보면, 장기적인 기획을 세워 디자인 트렌드를 가지고 갑니다. 꼭 기획과 연관된 표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유명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파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간행물에 있어, 표지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제 생각에 표지에 신경을 쓰려면 독자들이 간행물을 액자 속에 넣어 전시하고 싶은 정도까지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디자인에서 오죠. 이를 위해 「공군」지만의 스타일북을 제작해보는 것도 좋죠. 디자인의 통일성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군」지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세현

‘고루함’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군 조직의 특성상 매 월 하는 행사가 일정하기 때문에, 편집자가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손제연 중위가 얘기했듯이 「공군」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단순한 공보자료가 아닌, 월간지가 가진 기획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군」지의 발전방향은 오히려 공군인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사진 보자고 「공군」지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또한, 공군 사진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오거든요...(웃음)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텍스트의 생명력은 좋은 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손제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군인이 보는 공군’이 아닌 예를 들면, 공군에 대한 이야기를 여대생이 해본다면? 뭔가 새로운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미리 연간기획을 세워두고, 특정한 달에는 공군지를 증면하는 방법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면의 한계로 아쉽게 담지 못했던 사진을 화보집으로 재탄생시키면? 물론 실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만...(웃음)



조세영

그동안 「공군」지 편집에 몸담아 오신 분들, 그리고 「공군」지에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분들 덕에 지금까지 「공군」지가 조직의 필요와 독자들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공군」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응원을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들 일어날까요? **AF**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제17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주제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항공우주산업 발전방향
**Aerospace Power fo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rection of Aerospace Industries**

2011.10.17(월) 09:30~16: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Hotel



SYMPOSIUM

2011 October

Vol.400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1 October

Vol.400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0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10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400호
표지가 그려진
USB 8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0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0월 31일까지

1. 월간 「공군」이 이번에 ()호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 공군을 주제로 방영된 TV 드라마로 김원준, 나현희 등이 출연한 이 드라마는?
3. 월간 「공군」의 매달 발간부수는?

8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체스타이즈 작전 2. 니벨룽의 반지 3. 땀띠

퀴즈 당첨자 경북 경주시 **박기호** ● 경기 성남시 **안대순** ● 대구 동구 **심재훈**
전남 여수시 **박현아** ● 제주 노형동 **이민수** ● 대전 서구 **조은정**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항공무기정비항공안전항공운항정보체계관리전산항공관제
항공기체정비항공기상분석항공운수회계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항공동계기계항공기정비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군무원항공전산장비정비
승호리사관후보생항공구조항공생리F-5정밀측정장비정비
남부전투사령부전력운영항공기체정비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군무원항공전산장비정비
화학현신관리제19전투비행단부사관보안체계관리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제3훈련비행단월간공군항공기재보급항공장구정비항공단약정비
T-103공군력지상레이더체계정비정보항공소방항공과학고등학교항공기상장비정비
제30방공관제단T-50탑건항공시설창공헌병항공기전기장비정비
제1전투비행단교육제10전투비행단코메트병사도전기상
KCF-16공군작전사령부시설제6탐색구조전대C-130감찰제20전투비행단장교통신전차공군에이스인사행정
제11전투비행단정훈F-15K무선통신체계정비차량운전전술항공통신정비
방공포병탐색구조공군군수사령부제5전술공수비행단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정보통신공군사관학교공군교육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팀워크에어쇼
제18전투비행단KT-1보급제15훈성비행단항공전투시물레이션대회항공전자전장비정비
수송무기정비법무간호F-4E스페이스챌린지항공기지상장비정비항공전자전장비정비
F-4E의무행정북부전투사령부KT-1비상
방공포병사령부KA-1파일럿조종

400

MONTHLY MAGAZINE
AIR FORCE